



차 례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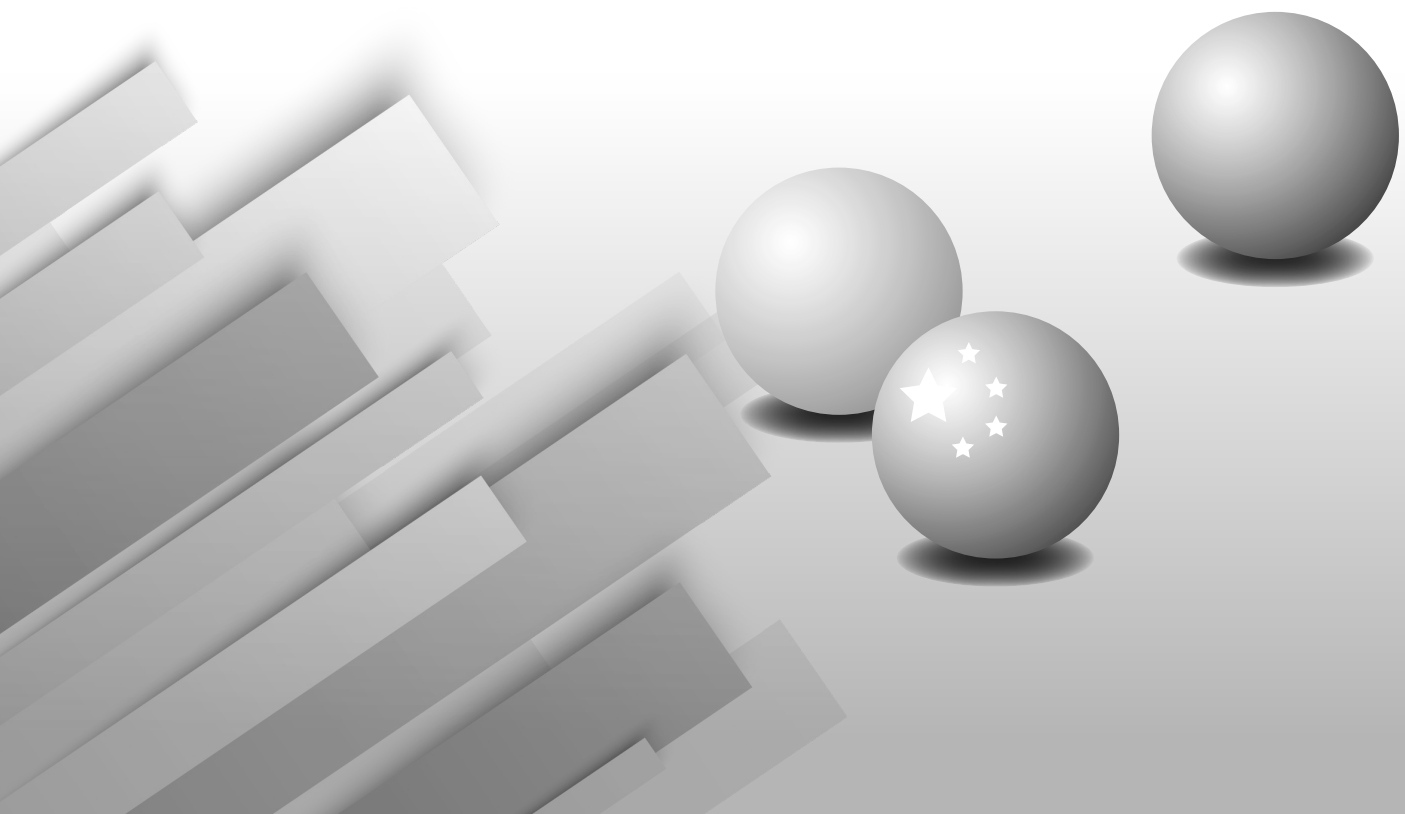
이슈와 진단	02
중국 하북성 항일유적지 현황과 시사점	
중국 지방정부 주요 정책 및 교류 동향	19
▶ 2019 중국양회 정책 이슈	20
▶ 중국 지방정부 국제교류 동향	28
현대중국의 이해	31
4인방 제압과 진리표준 논쟁	
충남 속의 중국	46
백제시대 사신교류와 교역의 관문, 서산 지곡면 닳개포	
충청중국포럼 소식	52
제39회 충청중국포럼소식	53
발간목록	56



중국 하북성 항일유적지 현황과 시사점

박경철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책임연구원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많은 민간영역의 단체에서 지난 100년 동안 이어온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고 자주, 평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 호 이슈와 진단에서는 중국 내 많은 항일유적지 가운데 충남도과 자매결연 지역인 하북성(河北省) 내 항일유적지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충남도과 하북성 간 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글에서 지명과 인명은 편의상 한자음으로 표기함)

1. 중국 내 항일투쟁의 메카, 하북성(河北省)

- 충남도가 중국 내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먼저 자매결연을 체결(1994년 10월 19일)한 하북성은 중국에서도 항일운동의 메카로 평가되고 있다.

하북성은 중국의 수도 북경과 직할시인 천진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중국 최대 곡창지대인 화북평원이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북경에서 이어진 태항산맥이 자리하고 있다. 태항산(太行山)은 중국의 그랜드캐니언으로 불릴 정도로 대협곡이어서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기에는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다.

항일전쟁 시기 중국 공산당은 일제가 만주를 침탈한데 이어 1937년 7월 7일 북경 인근의 노구교(蘆溝橋)사건을 터트려 북경까지 침략하게 되자 일본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하북성 태항산 기슭에 팔로군총사령부를 설치하고 방어선을 구축했다. 하북성은 일제가 중국대륙 침탈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길목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하북성이 일본군에 의해 뚫리면 중국 대륙은 일제에 의해 함락되는 것은 불 보듯 뻔했기 때문에 이곳에 팔로군총사령부를 두고 강력하게 저항한 것이다.

팔로군(八路軍)

1937년에 창설되어 주로 중국 화북지방에서 일본군과 싸운 중국공산당의 주력부대 가운데 하나이다. 정식명칭은 ‘국민혁명군 제8로군’이며, 1927년 남창(南昌)폭동 때는 홍군(紅軍)으로 불렸다. 제2차 국공합작(國共合作) 후에 국민혁명군 제팔로군으로 개칭하고 신사군(新四軍)과 함께 항일전의 최전선을 담당한 부대이다. 신사군이 주로 화중(華中) 지방에서 활약했

던 데 비해 팔로군은 주로 화북(華北)지방에서 항일전을 벌였으며 그 병력 규모는 약 2만 명 정도였다. 팔로군은 1947년에 인민해방군으로 다시 명칭을 바꾸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 중국 항일투쟁의 본거지인 하북성의 태항산기슭에서 팔로군과 협력해 강렬한 무장투쟁을 전개한 조선의용대(군)의 활약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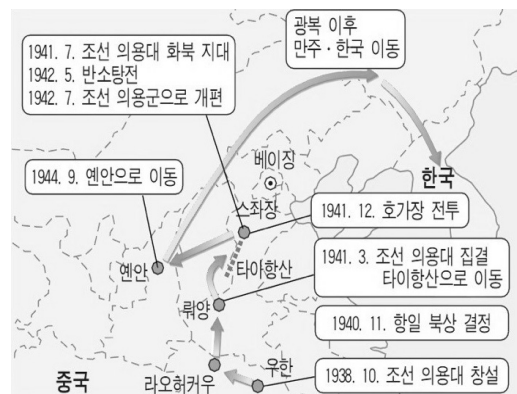
조선의용대는 의열단과 조선민족혁명당을 이끌었던 김원봉, 윤세주, 최창익 등이 중국 국공합작 시기 국민당 장개석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38년 10월 10일 호북성 무한에서 창립됐다.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좌절을 겪은 수많은 애국지사와 혁명을 열망한 조선의 청년들이 중국으로 망명해 조선의용대에 참여했다.

조선의용대는 창설 이후 주로 국민당 통치지역에서 항일 활동을 펼쳤으나 국민당 정부가 항일 투쟁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일부 부대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으로 편입했고 윤세주 등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 조선의용대원들은 공산당의 항일근거지인 태항산으로 들어와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태항산 항일지구로 들어온 조선의용대는 하북지역과 만주지역에 많은 교민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군사력을 키워 국내로 들어와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해방시킬 계획이었다.

조선의용대는 무한, 중경, 계림, 낙양 등의 전장을 거치고 온갖 어려움과 곡절을 거쳐 1941년 3월 팔로군총사령부가 있는 태항산기슭으로 들어왔다. 조선의용대가 이곳으로 들어오자 주덕, 팽덕희 등 팔로군 지도부는 조선의용대를 크게 환영해주었다. 조선의용대원들은 중국어는 물론 일본어에도 정통했기 때문에 대일 항전 시 선전, 선무 활동뿐만 아니라 첩보활동에도 능해 팔로군으로서는 전장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었다.



조선의용대 창립식(1938.10.10. 무한)



조선의용대(군)의 이동 경로

<그림 1> 조선의용대(군)의 이동 경로(출처: 구글 코리아)

- 조선의용대는 1942년 5월 일제가 태항산 팔로군 기지를 대대적으로 침략해 들어왔을 때 팔로군과 연합해 일제의 침략을 막아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팔로군 총사령관 부참모장 좌권(左權) 장군과 조선의용대 윤세주, 진광화 열사가 일제의 총탄에 전사했다. 따라서 태항산은 한중 우호·협력의 시발점이자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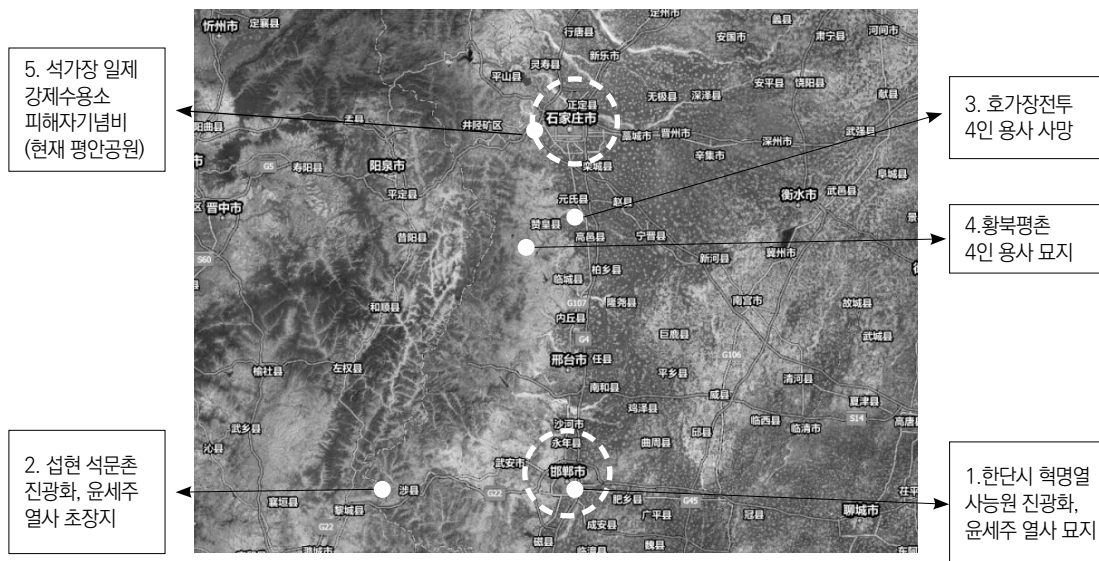
일제는 만주와 북경 침략 이후 중국 중원을 장악하기 위해 남하정책을 펼쳤지만 팔로군이 하북성 태항산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자 1942년 5월 일본군 20개 사단 40만 병력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태항산 팔로군 기지를 공격했다. 이에 팔로군은 조선의용대와 ‘반소탕작전’을 펼쳐 대대적인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팔로군 총사령부 부참모장 좌권(左權) 장군과 조선의용대 윤세주, 진광화 열사가 장렬히 전사했다.

윤세주, 진광화 열사는 태항산 십자령전투에서 팔로군이 일본군에 포위되었을 때 퇴로를 뚫고 안전하게 대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팔로군의 입장에서 보면 큰 은인이기도 하다. 더욱이 그 팔로군에는 개혁개방을 통해 오늘날 중국의 발전을 가져온 등소평과 중국인민해방군을 이끌었던 팽덕회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민에게 윤세주와 진광화 열사 그리고 조선의용대는 큰 은혜를 준 존재였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1950년 10월 윤세주와 진광화 열사를 우리나라 대전현충원격인 한단시 혁명열사릉원에 안장해 그 뜻을 기리고 있다.

II. 태항산지구 항일유적지, 진정한 한·중 우호협력의 시작

- 하북성 태항산지구에는 석가장시와 한단시를 중심으로 많은 항일유적지가 산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항일투쟁의 역사, 그리고 두 나라의 우호협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유적지로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첫 번째 장소는 한단시 혁명열사릉원이다. 하북성, 하남성, 산서성, 산둥성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했던 인물들을 모셔놓은 국립묘지이다. 두 번째는 한단시 섭현의 석문촌이다. 윤세주와 진광화 열사가 처음 묻힌 곳이다. 세 번째는 석가장 원씨현 호가장이다. 1941년 12월 12일 조선의용대와 팔로군이 일본군의 기습 침공에 맞서 싸운 곳으로 4명의 조선의용대 대원이 전사한 곳이다. 네 번째는 4인 용사의 묘지가 있는 석가장시 찬황현 황북평촌이다. 마지막으로 석가장시에 있는 일제강제수용소피해자기념비(현재 평안공원)이다. 이들 유적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하북성 내 항일유적지

1. 한단시 진기로예(晋冀鲁豫) 혁명열사릉원: 윤세주, 진광화 열사 묘역지

진기로예 혁명열사릉원은 산서성, 하북성, 산둥성, 하남성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하다가 전사한 열사들을 모셔놓은 곳으로 우리나라의 대전현충원과 같은 곳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윤세주, 진광화 열사가 안장되어 있다. 열사릉원은 도로를 경계로 북쪽과 남쪽 둘로 나뉘어 있는데, 북쪽 능원에는 좌권장군의 묘가, 서편으로 진광화 동지의 묘가 있고, 남쪽 능원에는 석정 윤세주 열사의 묘가 있다. 입구에는 마오쩌둥이 쓴 “無上光榮” 혁명탑기념탑이 있다. 한중 (지방) 정부 간 우호의 상징적인 곳이다.

윤세주(尹世胄, 1901년 6월 24일 ~ 1942년 6월 2일)

호는 석정(石正). 경상남도 밀양 출신으로 세살 위인 김원봉과 같은 마을에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으며 이후 평생 함께 독립 운동을 하는 동지가 됐다. 그는 1919년 서울에서 3·1 운동 시위에 참가한 뒤 고향에 내려와 밀양 지역 만세운동을 조직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의 수배를 받았으나 중국으로 피신했다. 만주의 신흥무관학교에서 수학하고 김원봉이 그 해 11월 결성한 의열단에 가입했다. 1938년에는 군 조직인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고 정치위원을 맡았다. 조선의용대에서 손꼽히는 이론가였던 그는 민족혁명당 편찬위원회 등에서 일하다가 1941년 김원봉과 헤어져 박효삼과 함께 화북 지방으로 북상하여 팔로군과 공동으로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가했다. 1942년 40만 명의 일본군이 총공세를 벌인 태항산 전투에서 조선의용군을 총지휘하며 일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1982년 건국훈장에 추서됐다.

진광화(陳光華, 1911~1942. 5. 28)

평안남도 평양(平壤) 출신. 일제강점기인 1931년 평양상업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가 남경 오세(五世)중학교에 입학했다. 재학 당시 한국유학생남경학생회의 간사를 맡아 활동했다. 이후 1929년 조직된 한국혁명당 산하단체 철혈단(鐵血團)에 가입하여 기관지 《우리 길》을 발간했고 1933년에는 광저우(廣州)로 가 중산대학(中山大學)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다. 1941년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진기로에 지회장과 화베이지방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지도원 직책을 맡아 무장독립투쟁을 벌였다. 1942년 6월 태항산의 장자령에서 일제의 대규모 진압군과 교전하다가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석정 윤세주 열사 묘역



진광화 열사 묘역

<그림 3> 한단시 진기로에 혁명열사릉원 참배 모습(충남농민회, 2016.7.12)

2. 한단시 섭현(涉縣) 석문촌: 윤세주, 진광화 열사 초장지

1942년 10월에 조성된 묘역이다. 1942년 5월 팔로군 부참모장이었던 좌권 장군과 반소탕전 당시 전사한 진광화, 윤세주 열사가 처음 안장된 곳이다. 이 묘지는 당시 모택동 등 중국의 수뇌부들이 특별히 주문해 최고의 명당자리에 터를 잡고 안장했다. 두 분의 유해는 1950년 한단시 진기로에 열사능원으로 이장됐다. 묘소 인근에는 2005년 8월 15일 개관된 조선의용군열사 기념관이 있다.

하북성사회과학원의 초대를 받고 하북성을 방문한 충남연구원 강현수 전 원장 및 연구원 일행은 2014년 12월 12일 하북성사회과학원과 섭현 현정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이곳 윤세주, 진광화 열사의 초장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윤세주, 진광화 열사 묘역



강현수 전 충남연구원장 및 연구원 일행 묘역 참배
(2014. 12. 12)



조선의용군열사기념관 전경



기념관 내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활동도

<그림 4> 하북성 석문촌 윤세주, 진광화 열사 묘역(초장지) 및 기념관

3. 석가장시 원씨현 호가장(胡家庄) 항일전투격전지: 네 분의 독립운동가가 전사한 곳

1941년 12월 12일 조선의용대와 팔로군이 연합하여 일본군을 정탐하고 주민들에게 대적 선전 활동을 하다가 일본군의 급습으로 독립운동가 박철동, 손일본, 최철호, 왕현순(본명 이정순)이 전사하고 유명한 항일작가 김학철 선생이 부상을 입은 곳이다. 일명 호가장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이 가운데 박철동과 최철호는 충청도 출신이다.

호가장(胡家庄)전투

1941년 12월 12일 중국 하북성 호가장에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이다. 호가장은 중국 하북성 태항산 줄기에 닿는 작은 마을로, 일본군이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의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최전선이나 마찬가지였다. 1941년 7월 7일 조선의용대 일부는 항일을 외치며 화북(華北)에 진입하여 화북지대를 결성하였

다. 그 해 12월 2일부터 김세광(金世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제2대 대원 20여 명은 호가장에 도착하여 보초를 세워놓고 민가를 빌려 잠을 잤는데, 마침 이 마을의 촌장이 이 사실을 일본군에 밀고하자 그렇지 않아도 이 부대의 무장선전 활동을 주시하고 있던 일본군은 3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마을을 포위하였다. 일본군의 습격은 12일 새벽에 시작되었다. 기습 공격을 받은 제2대는 집을 쌀 사이도 없이 총만 가지고 집합하여 서쪽 고지를 점령하려 하였다. 일본군에 포위된 사실을 알게 된 제2대는 기관총과 소총으로 응사하면서 월등한 적의 화력을 뚫고 포위망을 돌파하였으며,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태반이 사살되었다.(출처: 문화원형백과)



조선의용대 주둔건물



항일작가 김학철 선생 문학비(제자: 신영복)

<그림 5> 호가장 마을내 조선의용대 유적지

4. 석가장시 찬황현 황북평촌(黃北坪村): 네 분의 독립운동가가 안장되어 있는 곳

태항산 제1군사령부소재지로, 일본군과의 호가장전투가 벌어져 팔로군 12명과 조선의용대 대원(박철동, 손일봉, 최철호, 왕현순)이 전사하여 그들의 묘가 모여져 있는 곳이다. 당시 호가장 마을 주민은 일본군들이 그들의 묘를 훼손할 것을 염려하여 마을에 모시지 않고 호가장에서 100여 리나 떨어진 황북평촌 지역에다 모셨다. 묘지 입구에는 "조선의용군 태항산(太行山) 지구 항일전 순국선열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최철호(崔鉄鎬, 1915. 6. 19~1941. 12. 12): 대전인

1935년 중국 남경에서 혁명활동에 참가했고, 1938년 5월 중국 중앙육군 군관학교 특별훈련반 제6기로 졸업 후 한구지역 조선청년전시복무단과 조선의용대 제1-5전구에서 대적선전사업에 종사했다. 1940년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과 조선의용대 서안판사처(西安辦事處) 주임에

임명됐다. 1941년 조선의용대는 적후방의 혁명 무장부대를 건립키 위해 대적선전과 유격전을 치렀다. 호가장 전투 중 적탄에 전사했으며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박철동(朴喆東, ?~1941. 12. 12): 충청북도 청원인(?)

1936년 중국 낙양 중앙육군 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졸업했다. 1925년 7월 조선민족혁명당에 가입, 1935년 파견을 받고 화남으로 가다가 일본군에게 붙잡혀 규수 감옥에서 3년을 보냈다. 1939년에 낙양에서 조선의용대에 가입하여 눈부신 활동을 펼쳤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손일봉(孫一峯, 1912~1941. 12. 12.): 평북 의주인

1931년 중국 청도로 가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의 일원으로 반일활동에 참가했고, 상해에서 한국인 밀정을 제거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그는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투탄 의거 공모자 중 한 사람이었다. 1940년에는 민족혁명당원으로 조선의용대에 입대하여 제1지대 제1전구 사령부에, 1941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선임관으로서 하북 적후공작을 전개 중 후가장에서 산화했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이정순(李正淳, 1918.~1941. 12.12.): 평북 벽동인

1933년 중국 남경 의열단 간부학교인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제2기생으로 졸업했다. 그 후 의열단의 중앙당 연결 업무를 맡아 활동했고, 1936년 2월 민족혁명당 조직 검사국의 직원으로 활동했다. 중국 중앙육군 군관학교 특별훈련반을 1938년 5월 졸업한 후 조선의용대에 입대해 제2지대에 배치된 뒤 상북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1940년 남악으로 이동, 유격훈련을 마친 뒤 화북지방에서 임무를 수행 중 호가장에서 전사했다.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4인의 용사 묘지



대전 출신 박철동 열사의 묘지

<그림 6> 하북성 석가장시 조선의용대 4인 용사 묘지

5. 석가장시 일제강제수용소 피해자 기념비(石家庄集中营蒙难同胞纪念碑) 일명 “平安公園”)

이곳은 일제의 화북침략의 전진기지로 1938년에 만든 포로수용소였다. 이곳에 팔로군, 공산당, 조선인 등 5만여 명이 압송되었고 2만여 명이 사망해 석가장의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1997년 중국정부는 이곳에 <강제징용 피해자 기념비>를 조성했다. 이곳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후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에서도 참석해 한중 간 역사연대를 강화하고 있다.(2014. 4. 14)



석가장 일제 강제징용수용소 터의 기념관



징용피해자 및 후손들의 배상 촉구대회

<그림 7> 석가장시 일제강제수용소 피해자 기념비 및 배상 촉구 활동

Ⅲ. 태항산맥 기슭 마을에도 항일유적지 산재

- 하북성 태항산지구에는 많은 항일 유적지가 존재한다. 팔로군은 1937년에 이곳에 총사령부를 설치했고 이어 조선의용대는 1941년에 이곳으로 들어왔다. 이후 팔로군과 조선의용대(군)는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여러 곳에서 전투를 벌이는 한편 그들의 감시를 피해 주둔지를 이동해야 했다. 그들이 주둔했거나 전투를 치른 유적지는 다음과 같다.

1. 한단시 섭현 마전(麻田): 팔로군 총사령부 주둔지

조선의용대와 한중연합의 항일투쟁을 전개한 팔로군총부 전선사령부(총책임 부사령 팽덕회)가

있었던 곳이다.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는 중일전쟁 발발이후 제2차 국공합작이 급진전됨에 따라 1937년 8월 중국인민항일홍군을 국민혁명군 제팔로군으로 개편하고, 진남동지구(산서성 동남쪽 태항산 일대)에 팔로군 제129사단(사단장 유보승(刘伯承), 정치위원 등소평)을 배치한데 이어, 팔로군총부 전선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마전의 팔로군총부기념관은 1941년 7월 마전으로 이전한 이래 1945년 8월 15일까지 팔로군 총부 전선사령부가 있었던 곳으로, 현지 지주의 저택을 몰수하여 사용하였다. 현재 기념관 안에는 조선의용군 사령원 무정의 운두저촌 관사와 조선의용군이 운두저촌 마을입구 당집누각에 한글로 쓴 항일선전구호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2. 한단시 섭현 적안촌(赤岸村): 팔로군 129사 사령부

이곳은 팔로군 129사의 사령부 소재지로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1940년 유백승(刘伯承), 등소평(邓小平)이 소속된 팔로군 129사단이 태항산 지역으로 진격하며 진기로예(晋



팔로군 129사단 지휘부



129사단 내 등소평 숙소 겸 사무실



팔로군 총사령부 지휘관 모습



129사단기념관 내 조선의용대 활동사진

<그림 8> 한단시 적안촌 팔로군 129사단 유적지 및 기념관 전시물

冀魯豫)에 항일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129사 사령부는 12월 말 적안촌(赤岸村)으로 이전하여 이 마을 중앙 산비탈에 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유백승, 등소평, 이달(李達) 등 원로 지도자들이 항일전쟁을 지휘하며 승리에 공헌을 하였다. 사령부는 1945년 12월 무안(武安)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이곳에는 당시의 혁명 문물과 자료가 진열되어 있다.

3. 십자령(十字岭): 태항산 항일무장투쟁의 최대 격전지

태항산 십자령은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이 합작해 싸운 항일무장투쟁의 최대 격전지다(마전반격전·麻田反击战). 1942년 2월 일본군은 4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태항산을 공격하기 시작하다가 5월에는 20개 사단 40만 명의 병력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해왔다. 이때 조선의용군의 규모는 불과 3000~4000명 수준이었다. 일본군은 20개 사단 40만 명으로 태항산을 완전 포위한 후 전투기와 전차까지 동원,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폈다.

팔로군 총사령부의 안전한 퇴각이 난감한 시점에서 퇴각의 퇴로를 열기 위한 전위부대로 30여 명의 조선의용대가 앞으로 나갔다. 여기에 평양 출신의 진광화, 밀양 출신의 윤세주가 있었다. 이들이 퇴로를 뚫는 최전위 용사들이었다. 그 퇴로가 태항산 십자령 고개이다.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양쪽 산봉우리 사이의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두 산봉우리를 조선의용군이 공격, 정부대원이 탈출할 때까지 사수하기로 했다.

조선의용대는 작전개시 5시간 만에 탈출로를 확보했다. 하지만 수십 대의 일본 비행기가 십자령의 골짜기를 향해 폭격했고, 윤세주와 진광화는 총탄과 포탄에 맞아 전사했다. 그때 그들이 탈출로를 확보해 생명을 건진 대원들 중엔 팽덕회와 등소평이 있었다. 팽덕회와 등소평은 조선의용대가 앞에서 치열한 전투로 길을 뚫어 주어 무사히 십자령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다. 훗날, 팽덕회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등소평은 중국의 개방정책을 주도하며 아시아 역사의 새로운 물고를 텄다.

좌권 장군 또한 끝까지 남아 퇴각의 임무를 완수한다. 그러나 일본 비행기의 포탄에 맞아 절명한다. 부하들은 그를 전장에 묻고 퇴각했다. 하지만 잔인한 일본군은 좌권의 묘를 파헤쳐 그의 목을 베어 가지고 갔고, 중국은 아직도 좌권 장군의 목은 찾지 못했다.(중국측 주장은 다름)

좌권: 左權(1905-1942)

황포군관학교 1기생으로 1925년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여 모스크바 중산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홍군 제1군단 참모장으로서 2만5천리 대장정에서 험격한 공을 세웠다. 주덕과 팽덕회를 보좌하는 팔로군 작전참모 중 가장 젊고 탁월한 사람이었다. 주은래는 좌권을 두고 “내 인생에서 만난 사람 중 좌권만큼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군사지략가를 찾기로 힘들다”라고 했다. 좌권은 매우 지적이고 논리적이며 냉철하며 헌신적인 인물이었다.



십자령 정상에 좌권 장군상과 기념각



십자령에서 항전한 열사 기념비

<그림 9> 태항산 십자령의 항일유적지

4. 산서성 좌권현 운두저촌(雲頭底): 무정 장군과 조선의용군의 마지막 거처지

팔로군 지도부의 지휘를 받아 조선의용군을 지휘한 인물은 무정(武亭, 본명은 金武亭) 장군이다. 그는 일찍이 3·1운동에 참가하며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1934년에는 공산당 홍군(紅軍)의 2만5천리 대장정(長征)에 참가하였으며 이후 팔로군 총사령부의 작전과장과 중국 최초의 포병부대인 팔로군 포병단 단장을 거쳐 포병사령부 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연안파(延安派)의 핵심인물이다. 이후 조선의용군이 이곳 화북으로 올라오자 그는 1942년부터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산하 군대조직인 조선의용군 총사령관으로 활동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무정 장군과 조선의용군이 거처했던 곳은 마전에서 얼마 되지 않는 운두저촌이다. 구름도 머리 아래 낮게 내려앉는다는 마을이다. 이곳은 태항산지구 항일투쟁의 역사에서 조선의용군이 마지막으로 거처했던 곳이기도 하다. 당산나무가 무정 장군과 조선의용군 주둔지 앞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는 전로부터 작은 암자내지 성황당으로 추측된다.

운두저촌이 유명한 것은 마을 입구에 조선의용군이 써놓은 선전문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을 입구 문루(門樓)에는 조선의용군이 일본군 내 조선인 일본군의 투항을 선전한 문구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왜놈의 上官놈을 쏘 죽이고 총을 매고 조선의용군을 찾아오시오” 이처럼 이곳에는 당시 조선의용군의 긴박하고 용감했던 선전활동이 생생히 남아있다.



무정 장군과 조선의용군의 마지막 거주건물



운두저촌 문루 벽에 조선의용대가 쓴 선전문구:
"왜놈의 上官놈을 싸 죽이고 총을 메고 조선의용군
을 찾아오시오"

<그림 10> 조선의용군 마지막 거처지인 운두저촌

5. 한단시 섭현 남장촌(南莊村): 조선혁명군정학교 옛터와 음악가 정율성 선생 근무지

남장촌에는 조선의용군 총본부이자 조선혁명군정학교의 옛터가 있다. 1943년 4월 섭현 중원촌에서 남장촌으로 이전한 조선의용군과 조선독립동맹 총본부는 1944년 9월 이곳에 조선혁명군정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으로 전라도 광주 출신인 정율성(鄭律成) 선생을 임명하였다. 이곳 군정학교는 1945년 8월 일본군의 투항으로 조선의용군과 조선혁명군정학교가 남장촌을 떠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300여 명의 항일독립운동의 핵심 인물들을 양성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 이곳 건물은 마을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율성 선생(1918. 8. 13~1976. 12. 7)

전라고 광주의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중국으로 건너와 상해, 남경 등에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후에 연안으로 가 본격적으로 음악을 통해 인민해방과 항일투쟁활동을 전개했다. 그 유명한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정율성 선생은 해방 후 북한에 가서도 <조선인민해방군가>도 작곡을 하였는데 한 인물이 두 국가의 군가를 작곡한 예는 거의 없다고 한다.

뛰어난 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은 일찍 혁명의 근거지인 연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조선의용대가 중경(重慶)에서 이곳 태항산지구로 들어오게 되자 중공중앙에서 그를 이곳으로 파견해 조선의용대의 정착과 교육훈련을 돕도록 했다. 정율성 선생은 해방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남아 연안시기 알게 된 정설송 여사와 살다가 1976년 12월 7일 북경 인근에서 사망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매년 정율성국제음악제를 개최해 그의 항일정신을 기리고 있다.



조선혁명군정학교 옛터 표지판



항일음악가 정율성 선생과 부인 정설송 여사

<그림 11> 한단시 남장촌의 조선혁명군정학교 옛터와 정율성 선생

6. 상무촌(上武村 洪福寺): 조선의용대 최초 주둔지

상무촌은 조선의용군의 최초 주둔지이다. 조선의용군은 이곳 상무촌의 도교사찰인 홍복사에 주둔했는데(1940년 8월부터 1942년 2월까지) 이후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되었다. 홍복사는 원래 큰 사원이었지만 일제가 불을 질러서 지금은 작은 단층집 하나만 남아있다. 집 앞에는 ‘조선의용대주둔지’라고 새겨진 작은 흑판이 걸려있다.

현재 상무촌에는 현지 주민에 의해 홍복사의 일부가 복원되어 있고, 또 마을 입구에는 2002년 12월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와 중국 좌권현 인민정부가 합동으로 세운 <조선의용군 태항산지구 항일전 순국선열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조선의용대 주둔지인 상무촌 홍복사



마을 뒷산에 안장되어 있는 조선의용대 무명용사 묘지침배(충남농민회, 2016. 7)

<그림 12> 한단시 상무촌 조선의용대 최초 주둔지 및 무명용사 묘지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조선의용군 순국열사의 명복을 비는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또한 마을 뒷산에는 조선의용대원의 무덤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 묘소에 안장된 고인의 인적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7. 한단시 섭현 중원촌(中原村):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 위치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가 자리했던 중원촌은 마을 입구에서 500미터쯤 들어간 곳에 있는데, 생도들의 숙소로 추정되는 황토건물 일부가 남아 있다. 혁명학교의 설립취지는 화북 일본 점령지의 조선인들이 탈출해 오면 이들을 수용, 교육하고 의용군에 입대시키는 데 있었다.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1942년 화북조선 독립동맹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 화북지대로 개칭한 이후 교장 무정, 교무주임 김학무 등으로 진용을 꾸리고, 5개월 과정의 정치학습과 군사훈련을 시행하였다. 중심과목은 조선 혁명사, 사회발전사, 초보적 군사학 등이었다.

학교는 낡은 절간을 수리하여 숙사 겸 교실로 사용하였는데, 학생들은 겨울에는 학습과 훈련을 하였으나 봄과 가을에는 주로 생산 활동에 나섰으며, 일하다가 일본군이 쳐들어오면 들고 있던 호미를 내려놓고 총을 잡고 반소탕전에 참전하였다.



중원촌 조선의용대 주둔 건물



항일시기 태항산지구 신화일보사 주둔 건물

<그림 13> 한단시 중원촌 조선의용대 주둔지

IV. 종합 및 시사점

- 하북성 태항산 항일유적지는 상해, 중경, 만주, 연해주와 더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항일투쟁의

성지이다.

올해는 3·1만세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기념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 청사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중경에서는 광복군 청사가 복원되어 정부 차원의 기념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북성 태항산 항일근거지는 상해, 중경 못지않게 항일투쟁의 역사에서 중요한 성지이다. 이곳에서 중국공산당의 군대인 팔로군과 협력해 항일투쟁을 펼친 조선의용대(군)는 오늘날 한·중 우호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곳에는 팔로군과 함께 항일투쟁을 펼치다 전사한 윤세주, 진광화 열사가 우리나라 국립묘지격인 한단시 혁명열사릉원에 안장되어 있고 황북평촌에는 조선의용대 4인 용사가 잠들어 있다.

- 향후 충남도와 하북성 간 항일 역사 교류·협력을 통해 두 지방정부가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

충남도는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항일독립운동의 메카이다. 윤봉길, 유관순, 김좌진, 한용운, 이동녕, 이장녕, 이종일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충남도와 자매결연 지역인 하북성 또한 중국 내 항일투쟁의 메카이다. 더욱이 하북성은 중국의 팔로군과 우리의 조선의용대가 협력해 항일 투쟁을 벌였던 항일 성지이기도 하다.

항일투쟁은 단순히 일제와의 싸움만은 아니다.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에서 천명하였듯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공동의 발전을 위해 평화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다.

따라서 충남도와 하북성은 공통의 역사 경험과 인식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충남도와 하북성이 자매결연을 체결한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 화해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체계 구축의 분기점에 서 있는 지금, 충남도와 하북성 두 지방정부가 앞서 항일 역사 교류·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가보훈처_독립유공자 정보

북경대한국유학생연구생회(2012), 하북성 항일역사탐방 자료집.

한중항일역사탐방단(2014), 중국대륙에서 부르는 타이항산 아리랑, 차이나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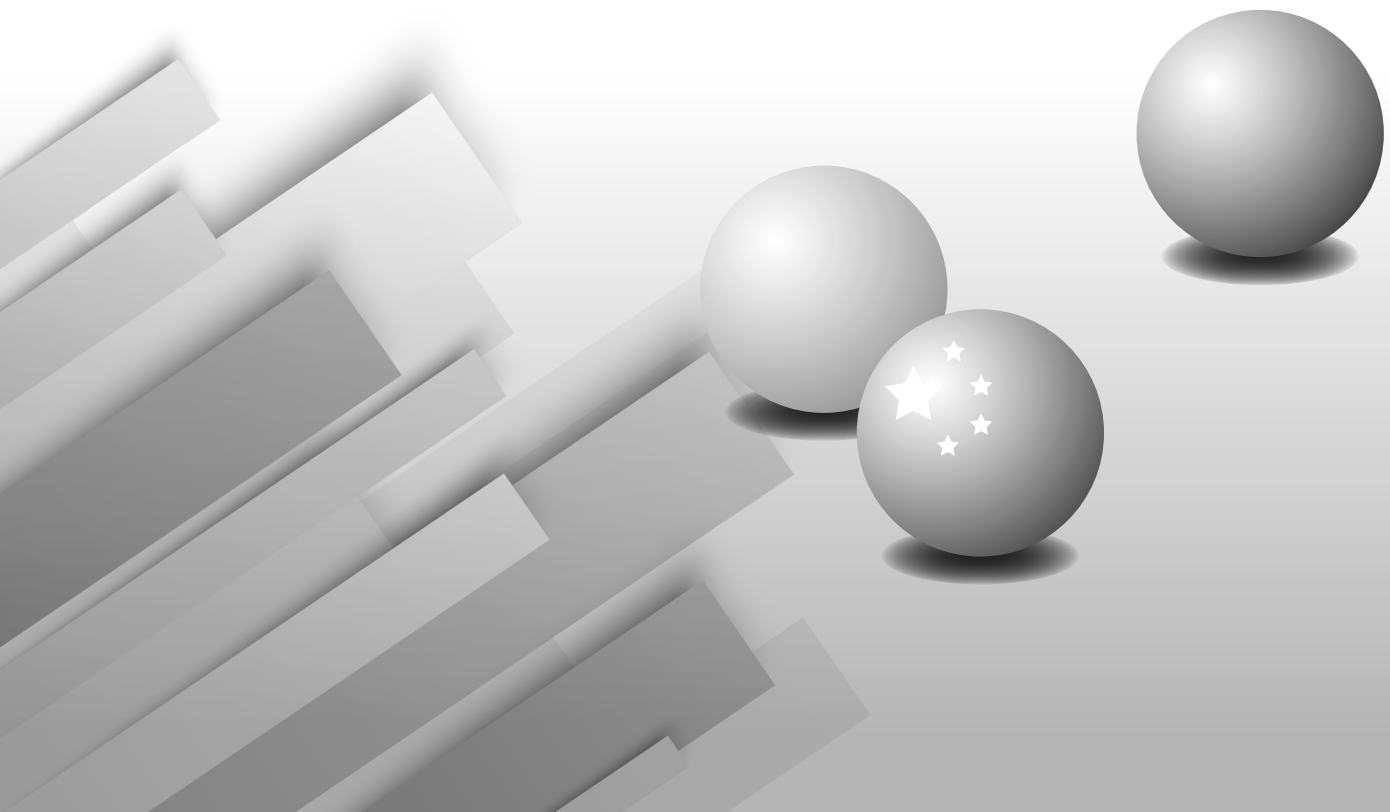
*본 내용은 연구자가 수차례 하북성 태항산지구 항일유적지를 방문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중국 지방정부 주요 정책 및 교류 동향

- ▶ 2019 중국양회 정책 이슈
- ▶ 중국 지방정부 국제교류 동향

전춘복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2019 중국양회 정책 이슈

1. 2019 중국전국양회(全國兩會)

지난 3월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2차 전국양회¹⁾가 막을 내렸다. 이번 양회는 3월 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었으며,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통해 2019년의 거시경제 목표와 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그림1>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사진

자료: 신화사(新華社)

(1) 거시경제 목표와 운영방향

2019년 거시경제 운영목표에 대해 ① 경제성장의 안정화 ② 경제발전수준 제고 ③고용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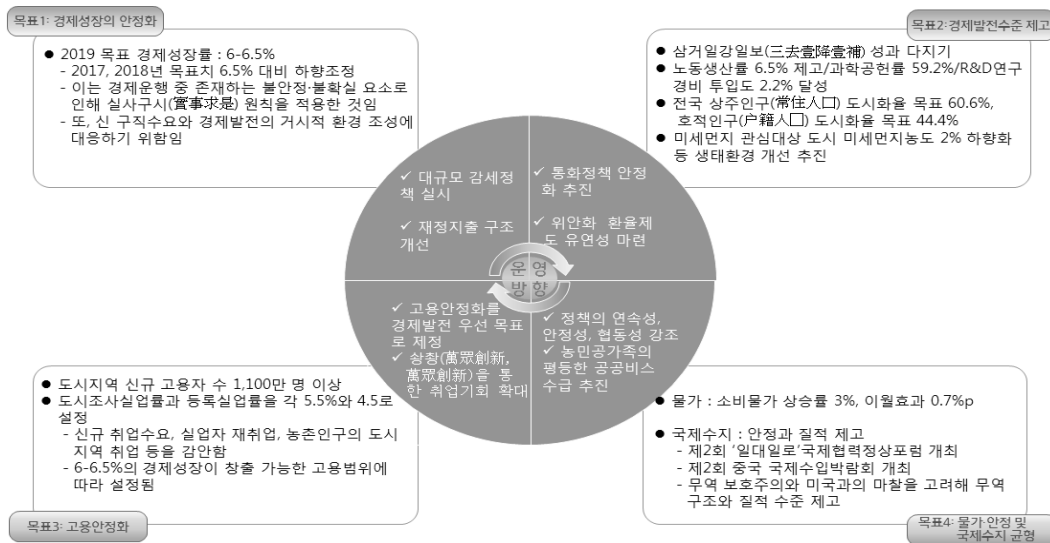
1) 양회 : 중국에서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한다.

④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균형을 제시하였다.

- 2019년 경제성장 목표치를 6-6.5%로 정하였는데 이는 작년의 6.5%에 비해 하향조정된 셈이다. 발전의 질적 수준 중 삼거일강일보(三去壹降壹補) 정책에 대해 과잉생산, 부동산 재고, 부채문제를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시하였다. 처음으로 고용 안정화 정책을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GDP는 하향조정했으나 고용부분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1,100만 명이라는 목표를 제정하였다.

거시경제 운영방향으로 우선 대규모 감세정책과 취업안정화를 경제사회발전의 최우선 목표로 제정하고 또 안정적인 통화정책, 정책 연속성·안정성·협동성 등을 제시하였다.

- 증치세 세율 대폭 인하, 소득세법 조정을 통한 민영경제 활성화를 제시하였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이전 확대와 특수채권 발행 규모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2> 2019 거시경제의 주요목표와 추진방향

자료 : 중국정부 홈페이지(中國政府網)

(2) 8대 중점업무

2019년의 경제 및 사회분야에 대한 8대 중점업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 제조업 질적 발전, 제조업과 정보화서비스의 융합 발전, 영세기업의 기업원가 절감, 민영기업 발전 지원, 농업분야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등 업무를 통해 영세 주체들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가치사슬의 수준 제고와 국민경제 순환 구조를 마련

하여 실물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 국내 소비시장 확대 :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가속화, 전략 신흥 산업군 육성, 소비의 신 성장 동력 적극 육성, 유효 투자 촉진, 안정적 시장 예측 등 업무를 통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내 소비시장의 발전과 소비수요를 만족시킨다.
- 3대 난제 해소 : 중대 리스크 예방 및 해결, 탈 빈곤 문제, 오염 방지 문제 등 업무를 통해 경제사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한다.
- 혁신국가 건설 가속화 : 국가혁신체계 건설, 창업혁신 발전의 지속적 추진, 군·민 융합의 심도 있는 발전 추진 등 업무를 통해 혁신 국가 건설을 촉진한다.
- 중점분야 개혁 심화 : 행정 간소화, 국유기업 개혁, 중점업종 개혁 심화, 각개 요소들의 시장화 배치, 재정·세무금융체계 개혁 등을 통해 영세주체의 활력을 증가시켜 경제체제 개혁을 강화한다.
- 대외개방 수준 확대 : ‘일대일로’ 국제협작 심화, 대외무역 안정화, 외자유치 확대, 대외투자자의 안정적인 발전 촉진, WTO 규제개혁에 적극 참여 등 업무를 통해 보다 깊고 넓게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여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다.
- 도농 균형 발전 : 농촌진흥전략 촉진, 사람중심의 신형도시화 추진, 지역 균형발전 추진, 국가 중점지역 전략 심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해소한다.
- 민생 보장 개선 : 취업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실시, 사회보장체계 마련 및 정책 개선, 공공 서비스 보완 및 개선 등 보편적이고 지속가능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표1> 2019 양회에서 발표한 8대 중점 업무

중점업무		중점업무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제조업 질적 발전 촉진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육성 발전 등	국내 소비시장 발전	전통 산업 업그레이드 가속화
	제조업과 정보화서비스의 융합 발전		전략 신흥산업군 육성 -차세대 ‘광대역중국’ 전략 제정
	영세기업 원가 절감 - 용자담보 비용절감 및 인센티브 지급 체계 마련 등		소비 신 성장동력 적극 육성 -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3년행동방안’ 제정
	민영기업 발전 지원		유효 투자 촉진 - 전년대비 중앙예산 400억 위안 증가(5,776억 위안)
	농업분야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식량안전에 대한 성장(省) 책임제 제정 등		시장예측 안정화 - ‘제4차전국 경제센서스데이터 수집’ 실시
3대 난제 해소	중대 리스크 예방과 해결	혁신국가 건설 가속화	국가혁신체계 건설
	빈곤 탈출 문제		창업혁신 발전의 지속적인 추진
	오염방지 문제		군·민 융합의 심도 있는 발전 추진

중점분야 개혁 심화	행정 간소화	대외개방 수준 확대	'일대일로' 국제협약 심화
	국유기업 개혁		대외무역 안정화
	중점업종 개혁 심화		외자유치 확대
	각개 요소들의 시장화 배치		대외투자의 안정적 발전 촉진
	재정·세무금융체계 개혁		WTO규제개혁에 적극 참여
도농 균형 발전	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0) 적극 추진	민생 보장 개선	취업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실시
	사람중심의 신형도시화 추진		사회보장체계 마련 및 정책 개선
	지역 균형발전 추진		공공서비스 보완 및 개선
	국가 중점지역 전략 심화		

자료 : 중국정부 홈페이지(中國政府網)

2. 2019 지방정부양회(地方兩會)

(1) 지방정부 양회 주요 정책 및 이슈

중국 지방정부 양회는 1월 9일 티베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국 성급단위(성·직할시·자치구)에서 개최되었다.

- 각 성에서는 매년 초에 양회를 개최하며 양회를 통해 성장이나 시장 등 주요 인사를 임명하고, 전국양회에 참석할 지역 대표단을 구성한다.
- 그리고 전년도 실적을 점검하고 해당 년도 정책방향과 중점 추진 업무를 제시한다.

2019 지방정부 양회 중 각 성급 정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인민망(人民網)에서 분석·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파란 하늘 지키기/GDP/국유기업 개혁/고용 안정화/인공지능 등이다.

- 파란 하늘 지키기 : 성급 지방정부도 생태환경 보존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다양한 목표와 정책을 제시하였다. 허베이성은 PM2.5 농도를 평균적으로 5%이상 하락, 장쑤성은 PM2.5 평균농도를 $47\mu\text{g}/\text{m}^3$ 으로 하락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지방정부가 “경유화물차 관리”에 관심을 모았으며, 베이징은 “노후경유 화물차 폐차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화물차량 발전 지원”, 랴오닝성은 “도시내 배기기준 초과 차량 폐차”, 허베이성과 안후이성은 “경유 화물차량 오염 전문 관리” 등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그림3> 2019 지방정부 양회 핵심 키워드

자료: 인민망(<http://leaders.people.com.cn>)

- GDP : 31개 성급 지방정부 중 티베트가 설정한 목표는 1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GDP가 두 자리인 유일한 지방정부이다. 그 뒤로는 구이저우성이 전년의 10%에서 1%p 낮춘 9%를 제시하는 등 대체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국면을 보였다. 전년대비 GDP를 상향 조정한 지방정부는 하이난성(7-7.5%)과 후베이성(7.5-8%)이다.
- 고용 안정화 : 민생의 일환인 고용 안정화를 여러 지방정부에서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는데, 26개 성급 지방정부가 도시 신규 일자리에 대한 목표를 제정하였고 그 중 광둥성과 허난성은 110만 명, 장쑤성은 120만 명이상을 신규로 창출할 일자리 목표로 제정하였다. 또 광둥성, 텐진시, 티베트자치구, 칭하이성은 모두 3%대 등록실업률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시한 주요 성급 지방정부와 정책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헤이룽장성 : 인턴기간 종료 후 정식 고용비율이 50%이상인 기업에 보조금을 60%까지 지원
 - 후베이성 : 인원 비감축 혹은 여유인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기업에 전년도 납입 실업보험급여의 70%까지 반환
 - 윈난성 : 성급 인턴보조금²⁾ 표준을 기존의 1인당 600위안/월에서 700위안/월로 상향 조정하고 인턴 종료 후 고용비율이 50%이상인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의 1인당 700위안/월에서 800위안/월로 상향조정
 - 하이난성 : 인턴 종료 후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하이난성 최저임금에 맞게 10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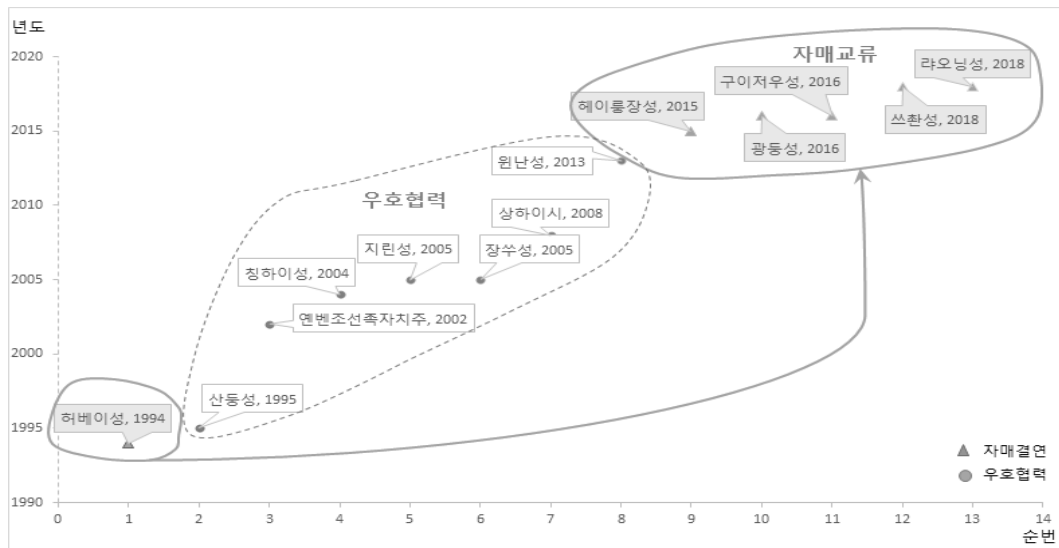
2) 인턴에는 취업준비생도 포함됨.

- 인공지능 : 지방양회에서는 5G, 인공지능, 산업인터넷분야 등 ‘신경제’가 기초건설과 투자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베이징시는 5G, 산업인터넷 등 신형 기초인프라 건설 가속화, 쓰촨성은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등 신형 기초인프라 건설 강화, 광둥성은 광저우, 선전 등 인구밀집지역에 5G건설을 착수할 것이며 10억 위안을 투자하여 총 2,700여개 기지국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제시하였다.
 - 허난성 : 성급 중점항목 400건, 총 19,523.6억 위안 투자
 - 충칭시 : 중점항목 885건, 총 20,729억 위안 투자
 - 광둥성 : 중점항목 1,155건, 총 5.82만억 위안 투자
- 민영경제 : 개혁개방이후, 민영경제는 국내 총 세금의 50%이상, GDP의 60% 이상과 70% 이상의 기술혁신에 기여했고 전체 일자리의 80%와 전체 기업의 90% 이상 성과를 기록하였다. 텐진시는 기업 추가대출과 보조금으로 100억 위안의 예산 확보, 상하이시는 100억 위안의 상장회사 펀드기금 조성, 장쑤성은 실물경제 기업의 원가를 약 1,600억 위안 감소 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성급단위 지방정부들에서 민영경제발전을 위해 제시한 정책들이 눈에 띄었다.
 - 쓰촨성 : “민영경제건강발전20개조치의 전면적 실시와 촉진(全面落實促進民營經濟健康發展20條措施)”
 - 허베이 : “민영경제 ‘백천만’ 업그레이드 공정 실시(實施民營經濟‘百千萬’提升工程)”
 - 허난성 : “민영기업의 허가, 공정입찰, 은행융자 등 분야에서의 불공정 대우 제거(消除民營企業在準入許可、工程投標、銀行融資等方面的不公平待遇)”
 - 지린성 : “민영경제발전 40개 조례”와 보조정책 실현(民營經濟發展40條和配套政策)

(2) 충남과 교류체결 주요 지방정부 정책방향

■ 충남 대중국 교류 현황

충남도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대중국 교류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1994년 허베이성과의 자매결연 관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자매결연은 6개 지역, 우호교류는 7개 지역이다.



<그림 4> 충남 대중국 교류 체결 현황

<표2> 충남도 중국교류현황

구분	지방정부	체결일자	구분	지방정부	체결일자
자매결연	중국 허베이성	1994. 10. 19	우호협력	중국 산둥성	1995. 10. 31
	중국 헤이룽장성	2015. 01. 28		연변조선족자치주	2002. 04. 16
	중국 광둥성	2016. 06. 27		중국 칭하이성	2004. 09. 01
	중국 구이저우성	2016. 11. 22		중국 지린성	2005. 09. 26
	중국 쓰촨성	2018. 09. 03		중국 장쑤성	2005. 09. 27
	중국 랴오닝성	2018. 11. 27		중국 상하이시	2008. 11. 03
				중국 윈난성	2013. 06. 05

자료 : 충남도청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019. 04 기준)

※ 쓰촨성과 랴오닝성은 2018년 9월과 12월 기존의 우호협력 관계에서 자매교류로 관계를 격상시켰음

■ 충남과 교류 중인 주요 지방정부의 2019 정책방향

2019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전국 성급단위에서 지방양회가 개최되었고 충남도와 자매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랴오닝성, 쓰촨성, 구이저우성, 광둥성, 헤이룽장성, 허베이성의 ‘2019 업무보고’를 통해 살펴 본 각 지역 정책들의 주요 목표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자매교류 중국 지방성정부 중 2019 GRDP 성장률을 국가 예상 수치보다 높게 잡은 지방정부는 쓰촨성과 구이저우성이다. 광둥성은 총 GRDP를 10만 억 이안 돌파할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구이저우성은 1.6만 억 위안을 목표치로 제시하였다.
- 광둥성은 신규 일자리를 110만개 이상 창출하고, 헤이룽장성은 5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쓰촨성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비용품 매출 10% 상승과 도농지역 가처분소득 상승 목표치를 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 환경문제에 있어서 구이저우성은 삼림 피복률 58.5%, 허베이성은 35%의 목표치를 제시하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p>랴오닝성</p> <p>주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공공 예산소득 6.5% 상승 규모이상 공업의 부가가치 8% 상승 고정자산 투자 8% 상승 주민소비물가 3% 상승 주민소비물가 3% 이내 소비용품 매출 7% 상승 수출입 총액 7% 상승 	<p>주요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환경/공급구조/국유기업/세계경제 등 시장개혁 심화 시험구 등 산업단지의 혁신 촉진과 제조업 고도화 실현 첨단산업 육성 및 첨단시험구 건설 - 제조업 육성을 위한 라오닝 브랜드 창출 BMW 시공장 등 기회를 활용해 자동차 제조 중심으로 자리매김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대형건설프로젝트 실시, 서비스업 혁신, 관광업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추진 대외개방 수준 제고(일대일로 추진, 한-중-일-러의 협력 심화, 하계 대련 '다보스 포럼' 개최) '3농'사업의 새로운 국면 맞이(현금 토지사용거래중심 '설립 등) 3대 난제 해소(三大攻坚战, 중대 리스크, 빈곤, 생태환경 오염 의미)
<p>쓰촨성</p> <p>주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DP 7.5%가량 증가 고정자산투자 10% 증가 소비용품 매출 10% 증가 도농별 1인당 가처분소득 각 8%, 9% 증가 도시 조사 실업률과 등록 실업률 각 5.5%, 4.5% 수준 유지 	<p>주요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수준의 질적 제고, 대외 무역과 투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 공급구조 개혁과 데이터경제, 인공지능 등 현대 서비스 산업 발전 촉진 '판다 과학의 발견 150주년' 기념관광 등 지역관광 브랜드화 항공분야 융합 혁신 및 '쓰촨국제항공우주전시회' 개최 창업생태 환경, 플랫폼의 질적 제고를 통한 '창창' 활동 업그레이드 소수민족 지역 초중고 '9+3' 무상교육 및 15년 무상교육 정착 3대 난제 해소, 생태문명·환경 건설 등 중앙정책 중점 추진
<p>구이저우성</p> <p>주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DP 9% 증가, 1.6만 억 위안 기록 고정자산투자 13% 증가 소비용품 매출 10% 증가 노동생산량 7.3만 위안으로 상승 신규 취업자 수 75만 명 삼림 피복률 58.5%, 공기질 우량일 95%수준 유지 농촌빈곤인구 110만 명 감소 	<p>주요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년을 빈곤 탈출의 결정적인 해로 지정하고 농촌 산업혁명 강화, 빈곤지역 중점 지원 실시 항공, 우주, 자동차 산업을 중점산업으로 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무인기, 항공발동기 등 첨단장비를 중점 육성 구이양(貴陽)5G 실험망중립중심시험항목 건설 가속화 / 화웨이, 애플, 텐센트 등 빅데이터핵심 건설 서부대개발 20주년 맞아 공업분야 투자 4,200억 위안, 민간투자 6,500억 위안 달성 지역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색 상업거리 10곳, 100개 지역 편의시설 조성, 100개 농산물거래소 정보시스템 개선 국가녹색생태문명시험구 건설 및 녹색경제 산업망 구축, 저탄소 중심의 녹색생활 정착
<p>광둥성</p> <p>주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DP 6-6.5% 성장, 10만 억 위안 돌파 일반 공공예산수입 6-6.5% 증가 고정자산투자 9% 증가 도시 신규 취업자수 11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과 등록 실업률 각 5.5%, 3.5% 이내 소비용품 매출 7% 상승 	<p>주요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웨이강아오대만구(粵港澳, 광둥-홍콩-마카오) 중점 건설 3대 난제 해소(三大攻坚战) 정책의 확실한 목표와 성과 창출 공급구조 개혁 강화/신종산업 육성/실용경제 발전 촉진/저탄소녹색 성장 첨단분야 혁신 강성(強省) 건설 가속화/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군 조성 주장상각핵심구 산업 및 생태환경 중점/동서연해안 경제지대 건설/생태발전지구 건설 내수 소비시장 활성화/교통인프라 건설/대형 투자항목 유치 데이터정부(數字政府) 중점 건설/국유기업 개혁 심화 등
<p>헤이룽장성</p> <p>주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DP 성장률 5%이상 주민소비물가 상승률 3%이하 도시 신규 취업자수 52만 명 도시 실업률 4.5%이내 	<p>주요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대 난제 해소(三大攻坚战) 정책 지속 추진 공급구조 개혁/신 에너지 전환 가속화/첨단기술형 기업의 3년행동계획' 실시 하일빈중심으로 하는 '1시간, 2시간 경제생활권 조성'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 투자유치 강화/광둥성과의 협력 심화/외자 및 성의 투자 비중 각 5% 증가 지능형 관광 서비스 중점 육성 (APP, 위치공공계정 등 적용) 전통 국유기업 혁신, 농업의 현대화 추진/다칭유전 등 중앙국유기업 개혁 러시아 중심의 대외협력/한-일-아국과의 문화·경제통상분야 교류협력/유럽 등 지역과의 거울관광, 환경 등 분야 협력 강화
<p>허베이성</p> <p>주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RDP 성장률 6.5%이상 고정자산 투자 6% 증가 소비용품 매출 9.5% 증가 수출입 총액 5% 증가 주민소비물가 상승률 3%이하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7% 증가 삼림피복률 35%, PM2.5 평균 5%이상 감소 	<p>주요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진이 협동 발전, 승안신구 건설, 동계올림픽 개최 등 국가급계획 적극 실시 공급구조 개혁(강철 1,400만 톤, 석탄 1,000만 톤, 시멘트 100만 톤, 코크스 300만 톤, 판유리 660만 톤, 화력발전 50만 kw 감축 생산) 제2회 허베이국제공업설계주 활동 개최 중점항목건설질량년(重點項目建設質量年) 활동 전개해 성급 400개, 시급 3,000개 건설사업에 총 7,000억 위안 투자 창청수소자동차에너지(長城汽車氫能產業)등 첨단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산업화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생점과 홍콩상품판매점 건설 연내에 과학기술분야 창업 인큐베이터, 중창공간 등 110 곳 신설 국제교류지역과의 관계 강화 및 국제경제무역협약단지 조성

<그림 5> 자매교류 지방정부의 2019 주요 목표와 업무

중국 지방정부 국제교류 동향

1. 중앙 - 『중일 청소년 교류 촉진년(中日青少年交流促進年)』활동 개최

2019년 4월 14일,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와 중국인민우호협회의 공동 주관 행사인 ‘중일 청소년 교류 촉진년’활동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와 일본외무 대신 고노 타로가 참석해 축사를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2018년 10월 중일양국정부가 체결한 ‘청소년교류 강화를 위한 비망록’에 따른 후속 활동이다.

‘청소년교류 강화를 위한 비망록’에서는 2019년을 ‘중일 청소년 교류 촉진년’으로 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 지역 민간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해 ‘교류 촉진년’활동의 영향과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한다고 제시되었다.



<그림 6> 『중일 청소년 교류 촉진년』 개막식

자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2. 헤이룽장성의 국제교류 동향

지난 4월 9일, 헤이룽장성 성장(王文濤)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하는 제5차 ‘국제북극포럼’ 참석차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 이번 포럼 참석을 통해 헤이룽장성은 ‘3교 1도(三橋：동강국경철로대교, 흑하국경대교, 동녕국경대교, 壹島：헤이샤쯔섬)’ 등 국경지역 기초 건설을 가속화하고 중·러 국경지역 경제협작 수준을 한층 제고시키고자 한다.

올해 개최한 ‘국제북극포럼’은 ‘북극-무한기회’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었다. 2010년 첫 회를 개최한 이 포럼은 주로 북극지역의 중요한 문제와 발전전망을 논의하는 국제교류 플랫폼으로 운영되어 왔다.

포럼개최 전 성장 왕윈타오(王文濤)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순회하고 원동과북극 발전부 부장, 러시아 교통부 제1부장, 경제발전부 부부장(副部長), 러시아 총통 고문 등 인사들을 만나 국경지역 건설과 경제 협작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림 7> 러시아 경제발전부 부장 회의사진(좌) 및 『2019 제5차 국제북극포럼』에서 발표사진(우)

자료: 동북망(東北網)

3. 지린성의 대북 교류 동향

지린성 외사판공실 주임 일행이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북한 함경북도와 나선시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향후 교류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대외사업국 국장(김명철)과 업무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2019년도 북한의 접경 3도(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와의 우호교류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린성 대표단은 다가오는 8월 지린성 창춘시에서 개최하는 ‘중국-동북아박람회¹⁾’에 3개도의 책임자들을 초

1)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2005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무역촉진회, 지린성정부가 공동 주관으로 첫 회를 개최함. 2013년까지는 매년 1회씩, 2014년부터는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음.

정하였다. 나선시 방문에서 나선시 관계자는 8월에 개최하는 ‘제9차 나선국제상품박람회’에 지린성 대표단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지린성 외사판공실 대표단은 이번 북한행에서 나선경제구를 둘러보고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림 8> 함경북도와(좌) 나선시(우)와의 업무 협의 사진

자료: 지린성외사교무판공실 (吉林省外事僑務辦公室)

참고자료

기관 인터넷 사이트 주소 :

中國政府網, <http://www.gov.cn>
 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http://www.cpaffc.org.cn>
 吉林省外事僑務辦公室, <http://wb.jl.gov.cn>
 中国网, http://www.china.com.cn/lianghui/news/node_8010376.shtml
 人民网, <http://leaders.people.com.cn/GB/70158/424085/index.html>

기사자료 인터넷 사이트 주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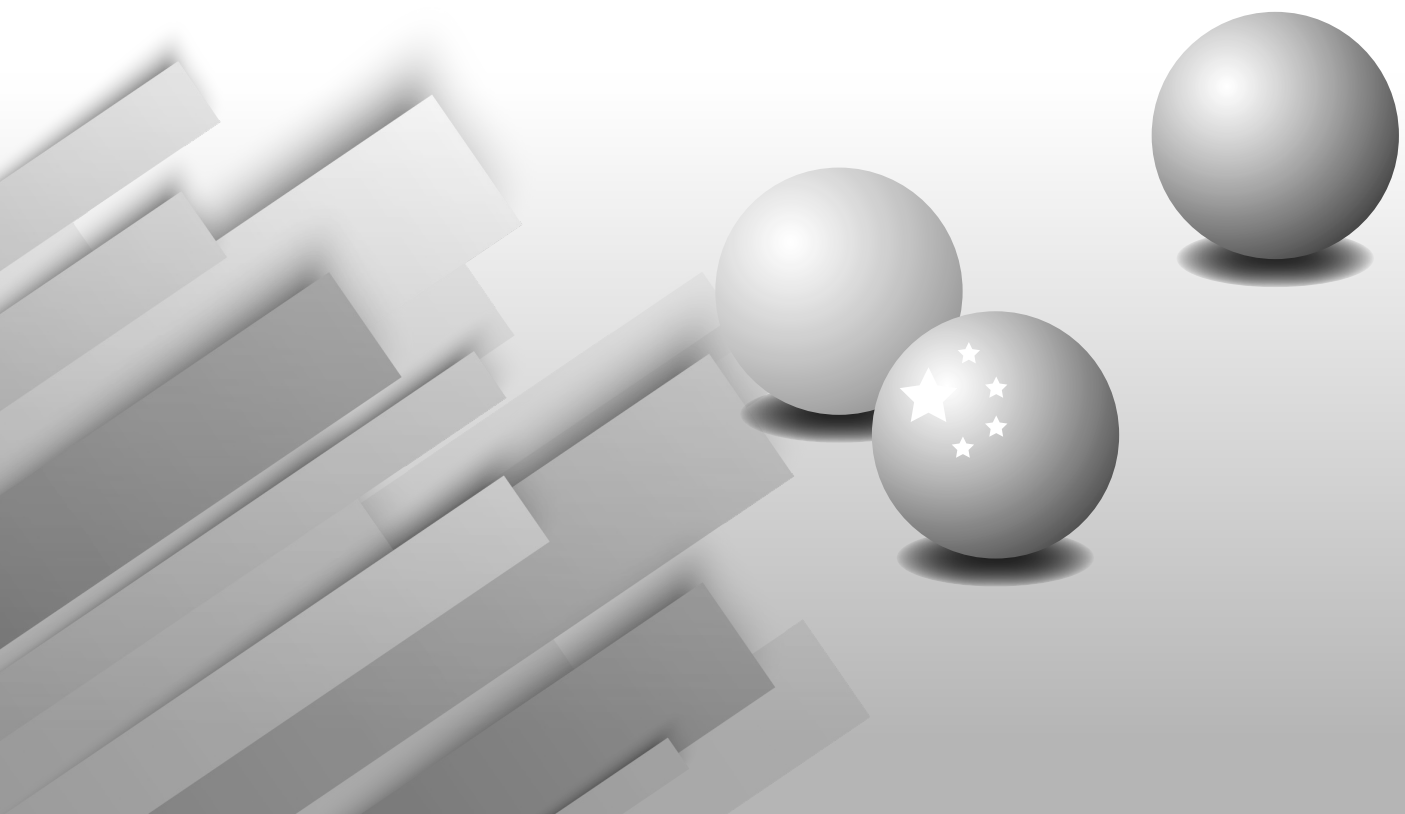
31省区市两会闭幕 7地政府工作报告提“新官要理旧账”, (검색일 : 03. 10)
<http://leaders.people.com.cn/n1/2019/0219/c58278-30805438.html>
 “保卫蓝天”成地方两会热词 13省区市2019年这样干, (검색일 : 03. 10)
<http://leaders.people.com.cn/n1/2019/0117/c58278-30560184.html>
 2019省级两会全落幕 五大看点透视各地发展目标, (검색일 : 03. 10)
<http://news.ifeng.com/c/7kOzjqjwOJ>
 国盛宏观:2019年地方两会8大看点 强化逆周期调节, (검색일 : 03. 10)
<http://finance.sina.com.cn/stock/stockptd/2019-02-11/doc-ihqfskcp4314304.shtml>
 5G、人工智能、工业互联网等成基建投资新增长点, (검색일 : 03. 10),
<http://it.people.com.cn/n1/2019/0131/c1009-30600809.html>



4인방 제압과 진리표준 논쟁

박인성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4인방 제압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의 죽음은 중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한 시대가 종결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9월 18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추도대회에는 약 100만 인민이 모였고, 중국 전국의 각 단위, 학교, 거주민위원회 단위로 모두 마오의 영정을 설치한 방이 마련되었고 미국 뉴욕의 유엔빌딩에도 조기가 게양되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중국 전국과 세계의 관심은 이제 누가 중공의 권력을 장악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당시 중공 정치국위원은 예젠잉(叶剑英), 리센넨(李先念), 왕홍원(王洪文), 장춘차오(张春桥), 류보청(刘伯承), 쉬스여우(许世友), 웨이궈칭(卫国清), 리더성(李德生), 천시렌(陈锡联), 지딩쿠이(纪登奎), 왕동싱(汪东兴), 우더(吴德), 천용구이(陈永贵) 등으로 혁명 1세대 원로간부파와 문혁파가 대립하는 구도로 형성되어 있었고, 마오쩌둥에 의해 후계자로 간택되어서 중앙 제1부주석직에 있던 화궈펑(华国锋)과 마오의 비서실장이자 중앙판공청 주임이었던 왕동싱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다.

화궈펑은 장칭, 왕홍원, 장춘차오, 야오원위안(姚文元) “4인방”집단이 권력 장악을 위한 활동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들을 제압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즉, 10월 1일에 당시 혁명1세대 간부이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겸 국방부장 직위를 맡고 있던 예젠잉(叶剑英)으로부터 4인방을 시급히 제압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은 후에, 리센넨과 중앙판공청 주임인 왕동싱과 회동한 후 결심을 굳혔다. 특히 왕동싱은 예젠잉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사안이 중요하고 긴급하니 보안유지가 중요하고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궈펑은 4인방의 일원인 야오원위안이 문화분야와 함께 언론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만일 통상적으로 당내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회의장소에서 이들 4인방을 체포한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장악 통제하고 있는 여론매체를 이용하여 선전공세를 펼 것이고, 그럴 경우에 자칫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내전상황으로 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4인방을 각각 무력으로 제압하고 격리심사하는 방식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리센넨(李先念, 1909-1992)이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

“당신은 중앙 제1부주석이므로, 당신이 이번 투쟁에 앞장 서면 인민들은 당신을 지지할 것이다.”

그 다음 날 예젠잉은 왕동싱과 만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4인방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국가는 출로가 없다.”

이 말에 왕동싱이 동의하며 말했다.

“형세가 급박하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결심할 때가 되었다.”

이 대화 직후에, 왕동싱은 중앙판공청(中央办公厅) 부주임 장야오츠(张耀祠)와 베이징군구

8341부대 정치위원 우젠화(武建华)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당 중앙이 이미 4인방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으니 그 행동방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4인방을 제압한 진행상황은 현장에 있던 왕동싱과 우젠화가 회고한 내용에 조차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童青林编著, 2008: 12-16쪽)

화궈핑, 예젠잉, 리셴넨, 왕동싱 등이 4인방 체포를 위한 행동방안에 대하여 토론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했다. 첫째, 목표 대상자들을 유인해 내기 위한 심리상태 파악이었다. 당시에 장춘차오와 야오원위안이 마오쩌둥 선집 제5권의 출판 작업을 매우 중시하고 관련자료 수집을 서두르고 있었으므로, 중앙정치국 회의 안건을 마오쩌둥 선집 출판에 관한 연구로 정하면 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러 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것이 적중했다. 둘째, 당 중앙의 규정과 관례에 의해도 마오쩌둥의 모든 원고와 문건은 중난하이(中南海)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었으므로, 마오쩌둥 선집의 출판 문제에 관한 회의나 연구는 통상적으로 중난하이 화이런탕(怀仁堂)에서 개최, 진행되었다. 이러한 규정과 상황은 장춘차오나 왕홍원 모두 잘 알고 있어서 의심을 유발하지 않고 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셋째, 마오쩌둥 기념관 건립에 관한 문제 연구를 안건으로 하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필히 참석해야 했다. 넷째, 중난하이 화이런탕이 행동을 실시하기에 비교적 편리하다. 우선, 화이런탕에서 왕홍원과 장춘차오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면 그 다음에 장칭과 야오원위안을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다.

10월 3일, 행동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나서 화궈핑은 “시간을 더 단축해 보라”고 제안했고, 왕동싱도 동의하면서 보다 빨리 행동하여 장칭 등 상대방이 선수 칠 가능성을 예방하자고 했다.

10월 4일, 왕동싱이 예젠잉에게 행동방안을 보고했다. 예젠잉은 행동방안이 주도면밀하게 잘 짜여졌다고 평가하고, 이대로 하면 필히 성공할 것, 단, 특별히 비밀 보안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10월 5일, 화궈핑, 예젠잉, 왕동싱이 행동계획에 대해 다시 의논했고, 원래 10월 10일 실시 예정이던 행동 시간을 10월 6일로 앞 당겼다. 왜 행동시간을 4일이나 앞 당겼는가? 사후에 화궈핑의 회고는 이렇다.

“만일, 주석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들 4인방 무리가 그토록 급하고 심하게 설쳐대지 않았다면, 우리도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흥폭하게 설쳐댔고, 정치국 조차도 안중에 없었다. 공공연하게 권력을 탈취하고 별개의 중앙을 세우려 했다. 우리가 획득한 믿을 만한 정보에 의하면, 그들은 10월 10일에 정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왕홍원은 표적으로 인물사진이 첨부된 살생부를 작성해 놓았고, 상하이에서는 민병들에게 총과 포를 지급했고, 거사 성공 후 축하행사를 하기 위한 대량의 홍색 천과 홍색 모조지 등도 지급했다고 했다. 우리는 사태가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특수한 조치를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모두 기습 체포하고 격리심사를 진행했다.”

10월 6일 오후 3시, 중공 중앙판공청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 당일 중난하이 화이런탕

에서의 회의 개최 통지를 전달했다. 회의 안건은 마오쩌둥 선집 제5권 출판문제 연구와 마오주석 기념당의 위치 선정 문제였다. 왕동싱은 4개 행동소조 대원에게 “첫째, 비밀 보호 둘째, 명령과 지휘에 절대 복종”이란 두개의 규율을 거듭 강조했다.

4인방 체포 당시의 상황을 왕동싱과 당시 수도경비를 담당하던 8341부대 정치위원으로 중난하이 화이런탕 현장에서 화귀평과 왕동싱의 명령에 따라 무장경위들을 지휘하여 직접 4인방을 제압, 체포한 우젠화(武建华)의 회고를 근거로 정리, 묘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월 6일 저녁 7시 55분, 중난하이(中南海) 화이런탕(怀仁堂) 입구쪽에서 낮은 음조의 목소리와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동쪽 휴식실 복도를 따라서 남쪽을 주시하며 걸어갔다. 앞쪽에 왕홍원(王洪文)이 막 돌아서 북쪽을 향해 걸어왔다. 나는 신속하게 화귀평, 예젠잉, 왕동싱에게 보고하고, 출입문 안쪽 양측에 잠복, 배치된 체포조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왕홍원은 평상시 복장 습관대로 군복 상의와 풀잎 색의 바지를 입었고, 가죽구두는 반짝거릴 정도로 광이 났고, 왼쪽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무런 의심이나 거리낌이 없어 보였다. 작은 문에 들어선 후, 화귀평과 예젠잉을 바라보는 순간, 좌우 양측에서 행동대원들이 달려들어, 각자 한손으로는 왕홍원의 좌우 어깨를 잡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팔꿈치를 잡고 비틀어 뒤로 돌려 추켜 세워, 머리는 아래로 향하고, 허리는 굽힌 상태로 제압했다. 기습을 받은 왕홍원은 당황한 상태에서,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 고 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뒤틀고 두발로 바닥을 치고 뛰면서 저항했으나, 무술로 단련된 두명의 경위가 좌우 양측 어깨를 잡아 누르고 팔꿈치를 뒤로 더욱 높게 들어 올리고, 뒤편에서는 또 다른 행동대원 두명이 바지 허대를 단단히 움켜 쥐고 끌어 당겨 들어 올리자 허공에서 무력하게 발을 저을 뿐이었다. 왕홍원으로 부터 약 5미터 앞에 예젠잉과 함께 앉아 있던 화귀평이 왕홍원을 바라보고 왕동싱이 적어 준 “격리심사 결정”을 엄숙한 표정으로 읽었다.

“왕홍원, 너는 당 중앙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파벌을 결속하고, 불법적 활동을 진행하면서, 당과 권력을 찬탈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등 당과 인민에 대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당 중앙은 너에 대해서 격리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즉각 집행한다.”

화귀평이 “결정”을 미처 다 읽기도 전에 왕홍원이 돌연 크게 고함을 지르며 경위 요원들의 속박에서 뛰쳐나와서 마치 성난 사자처럼 두손을 불과 5-6미터 앞에 있는 예젠잉의 목을 겨누고 돌진하려 했다. 돌발상황에 왕동싱 등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총을 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위들이 신속하게 덮치듯 달려 들어서 왕홍원을 저지하고 바닥에 쓰러뜨리고 억누른 후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두 사람의 무술 경위가 왕홍원의 좌우에서 그의 한팔과 어깨를 잡고 목을 누르면서 허리는 굽히고 머리는 숙이게 한 상태로 밖으로 끌고 나가 대기된 차에 태우고 베이징군구 내 모처로 이송했다. 끌려 나가면서 왕홍원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이야...!”

곧 이어 장춘차오도 왔으나 네명의 행동대원에게 제압 당한 후 화궈펑의 당 중앙의 결정 선포를 듣고 별다른 저항없이 끌려 나갔다.

오후 8시 이전에 왕홍원, 장춘차오 두 사람을 처리한 후에, 우젠화와 장야오츠(张耀祠)가 행동대원들을 데리고 장칭의 거처로 갔다. 갑자기 들이 닥친 사람들을 보고, 장칭이 “당신들 뭐하는 거냐?”하고 물었고, 장야오츠가 장칭을 향하여 당중앙의 “결정”을 대독했다. 당시에 장칭은 그 자리에서 화궈펑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문건함의 열쇠와 편지를 화궈펑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 순간에도 편지에 이렇게 썼다.

“궈펑 동지: 사람들이 와서 동지의 명이라며 나를 격리 심사한다고 선포하네요. 당중앙이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한 사람은 야오원위안이다. 그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므로, 그에게는 화이런탕 회의에 참석하라고 통지하지 않았으나, 화궈펑이 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현재 왕홍원, 장춘차오와 함께 마오쩌둥 선집 제5권 출판에 관해 상의하고 있으니, 당신도 와서 같이 의논하자고 했다. 야오원위안은 선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화궈펑의 전화를 받자 총망하게 화이런탕으로 왔고, 동측 휴게실에 들어선 직후에 우젠화와 그가 지휘하는 행동대원들에게 제압, 체포되었다. 우젠화가 그에게 “결정”을 대독하고, 격리심사 장소로 연행했다.

이때가 저녁 8시 30분이었으니, 4인방을 제압하는 데 약 35분이 소요된 셈이다. 이제 가장 시급한 일은 중앙인민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을 장악, 통제해야 했다. 화궈펑이 당시 중공중앙 대외연락부 부장이었던 경바오(耿飚, 1909-2000)를 화이런탕으로 불러서 당시 베이징군구(北京卫戍区) 부사령관 겸 참모장 처우웨이가오(邱巍高, 1922-2012)와 함께 중앙인민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을 접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때 화궈펑이 경가오에게 준 친필 명령메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지휘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은 경바오와 처우웨이가오 동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들은 이 두사람의 지휘를 접수하고, 무슨 일이건 직접 두사람에게 보고하고 지시받기 바란다. …, 이번 일의 처리방식도 총체적으로는 린바오 사건을 처리한 방법을 채택한다. 즉, 내부에는 이미 변화가 발생했지만, 외부에서는 이상 징후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라”

이들은 그날 밤 22시에 방송국에 도착한 후 당시 방송국 책임자였던 덩강(邓岗, 1916-1991)에게 화궈펑의 친필 명령메모를 주고 신속하게 방송 및 텔레비전 방송국을 장악했다. 그 다음날에는 화궈펑의 지시로 베이징군구 정치위원인 츠하오티엔(迟浩田)이 병력을 대동하고 인민일보사를 접수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3조 기율”을 선포했다.

“이제까지 인민일보사를 관리했던 몇 사람은 지금 이후부터는 다시 인민일보를 지도할 수 없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앙의 위탁을 받고 인민일보사의 업무를 관장한다. 모든 직원은 선전, 편집에 대해 우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멋대로 주동적으로 행동해선 안된다. 당신들은 중앙의

명령에 복종하고 중앙의 지휘에 따라야 하고, 작은 동작(小动作)이나 기밀을 누설 해선 안된다.



<사진 1> 화궈펑과 예젠잉



<사진 2> 재판정에 선 4인방(좌로부터 장춘차오, 왕홍원, 야오원위안, 장칭)

4인방을 제압, 체포한 그날 저녁에 화궈펑은 예젠잉의 거처였던 위첸산(玉泉山) 9호동에서 중앙정치국회의를 개최했다. 22시 30분에 회의가 시작되었고, 화궈펑이 회의에 참석한 천시련(陈锡联), 쑤전화(苏振华), 지덩쿠이(纪登奎), 우더(吴德), 니즈프(倪志福), 천용구이(陈永贵), 우궈이셴(吴桂贤) 등에게 당일 진행한 4인방 체포와 격리심사 조치 경과를 보고하고, 이 조치의 명분과 의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회의는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진행되었고, 예젠잉의 제의에 의해서 화궈펑을 중공중앙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한다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또한 마오쩌둥 선집 제5권을 조속히 출판하고 마오쩌둥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결정했다.

진리표준 논쟁과 덩샤오핑의 승리

“진리표준(真理标准) 논쟁”이란, 1978년 5월 10일부터 그달 말까지, 중공 중앙당교(中央黨校) 내부 간행물인 ‘이론동태(理论动态)’를 시작으로, 광명일보(光明日报), 인민일보(人民日报), 해방군보(解放军报) 및 전국의 주요 지방신문에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¹⁾ 라는 제목의 문장이 게재된 후 촉발되어, 약 1년 이상 전개된 사상투쟁 논쟁을 가리킨다.

마오쩌둥이 죽고, 4인방이 타도되고 나서야, 중국의 지도자와 인민들은 10여년 동안 지속된 “문화대혁명” 기간중의 대중적 광기 상태에서 벗어나, 비로소 중국과 자신의 위치를 차분히 돌아볼 수 있었다.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30주년을 앞두고 있었으나 아직 2억 이상의 농민이 추위와 배고픈 상태에 처해 있었다. 당시의 중국경제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고, 아시아권에서도 4마리 작은 용(四小龙)이라 불리는 신흥공업국들과의 격차가 갈

1) ‘实践是检验真理的唯一标准’

수룩 커지고 있었다. 2차세계대전 종전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의 내륙지방과 같은 빈곤상태에 처해 있던 한국,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선진국의 산업구조 조정과 세계시장 조정의 기회를 포착, 활용하면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당시 덩샤오핑을 포함한 중국 지도부에 매우 강한 충격을 주었다. “십년동란(十年動亂)”이라고 불리는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의 의도와는 정 반대로, 중국 인민들에게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 외에는 출로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중국의 당과 정부, 사회 각 부문과 분야에는 30년간 진행되고 누적된 집권적 지령성 계획경제체제가 유지되고 있었고, 사회주의 개조, 대약진, 인민공사 등을 거치며 형성된 평균주의와 극좌 모험주의 사상이 여전히 당정 간부와 인민들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개혁개방의 우선 과제는 이 같은 사상으로부터의 해방과 이론적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 개혁파가 추진한 이론적 돌파 시도로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1978년 5월부터 시작된 “진리표준” 논쟁 및 토론이다.

이 토론의 공격대상은 1977년 2월 7일 인민일보, 해방군보, 홍기(紅旗) 잡지에 사설로 발표된 “우리는 마오주석의 모든 결정을 결연히 옹호해야 하고, 마오주석의 모든 지시를 변함없이 따라야 한다”는 소위 “두개의 범시(两个凡是)”²⁾를 주장하는 범시파(凡是派)였다. 이들 범시파는 마오쩌둥이 죽은 이후에도 마오의 권위를 이용한 권력투쟁을 도모했으며, “두개의 범시”를 주장하면서 문화혁명 기간중 “우파”, “반혁명” 등으로 몰려서 탄압 받았던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파의 복권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 같은 목적 하에, 1976년 저우언라이 총리 장례식 기간에 발생한 1976년 청명절 천안문 사태³⁾를 반혁명사건으로 규정한 마오쩌둥의 지시를 계속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4인방 세력에 의해 반혁명 모자가 씌어진 인사들 대부분이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혁명 1세대 원로 당 간부들이었다.

비록 마오가 죽었고, 4인방도 타도되었으나, 마오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화궈펑(華國鋒) 당시 주석과 추종자들의 세력이 여전히 막강한 때였으므로, 덩샤오핑, 예젠잉, 후야오방(胡耀邦) 등 혁명 1세대 원로그룹은 범시파를 겨냥한 사상투쟁을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진행했다.

“두개의 범시”가 발표된 후 약 두달 후인 4월 10일에 그때까지 직무 회복이 안된 덩샤오핑은 당중앙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우리는 필히 후세에 까지 대대로 ‘정확하고 완전(完整)한’ 마오쩌둥 사상으로, 우리 당과 군과 인민 전체를 지도해, 당과 사회주의 사업,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업을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 2) 중국어 원문인 “凡是毛主席作出决策我们都坚决拥护, 凡是毛主席的指示, 我们都矢志不渝地遵循”에서 양 구절 앞의 ‘凡是’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범시(凡是)”란 “모두 그렇다” 또는 “무릇”이란 뜻으로, 마오쩌둥의 사후에도 마오가 행했던 모든 결정과 지시는 옳으므로 변함없이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즉, ‘우리는 마오주석의 모든 결정을 결연히 옹호하여야 하고, 마오주석의 모든 지시를 변함없이 따라야 한다(凡是毛主席作出决策我们都坚决拥护, 凡是毛主席的指示, 我们都矢志不渝地遵循)’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 3) 1976년 청명절에 그해 서거한 저우언라이 총리를 애도하고자 천안문광장에 모인 군중들중 일부가 광장 한편에서 장칭(江青)을 포함한 4인방을 비방, 성토했던 행위를 반혁명으로 규정, 검거 선포가 일었던 사건을 가리킴. 그후 1989년 6월 4일에 다시 천안문 광장에서 더욱 큰 규모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을 보통 ‘76 청명절 천안문 사태’와 ‘89년 ‘6.4 천안문사태’로 구분하여 부른다.

주목할 점은 덩이 마오쩌둥 사상 앞에 “정확하고 완전한”이라는 조건부 수식어를 달아 놓았다는 점이다. 즉, 표면적으로는 “마오쩌둥 사상”을 찬양하는 신중한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마오의 사상이라도 정확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옳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둔 것이다. 이후 “두개의 범시”에 대한 반박과 개혁개방을 위한 이론적 투쟁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⁴⁾

1977년 10월 9일, 당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中央党校) 복구 및 개혁식에서 화궈펑 주석의 추사후, 예젠잉이 실용주의 개혁파의 사상투쟁을 예고하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론은 실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두가지 측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필히 이론을 장악해야 한다. 이론이 없다면 한장의 백지에 불과하다. 무엇에 근거해 실제와 연결할 것인가? 또 하나는, 필히 실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만일 이론이 실제를 지도하지 못하고, 실제 검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이론인가? 절대로 이론을 공담(空談), 허풍, 심지어 거짓말과 혼동하며 논할 수는 없다”

1977년 12월 2일, 중앙당교 교육장 평원빈(冯文彬)이 학교 당위원회에서 중공 당사(黨史) 교육계획 발표시에, “당사(黨史) 연구는 과감하게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해야 한다.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기준이다. 만일 머리 속에 아직도 낡은 틀이 있으면 정신을 속박해서 연구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자, 당시 중앙조직부장과 당교(党校) 부교장을 겸임하고 있던 후야오방(胡耀邦)이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기준”이라는 표현을 중시해 철학교연실(哲学教研室) 주임 우장(吴江) 등에게 새로운 중공당사 교육방안을 작성하게 했다.

1978년 1월 18일 우장이 자신이 작성한 초고를 후야오방에게 제출했다. 당시 후야오방은 “수백천만 인민의 혁명 실천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척도이다. 노선의 정확성 여부는 단순한 이론 문제가 아니고 실천의 문제이며, 실천의 결과에 의해 증명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1978년 3월, 중앙당교 교육생 800여명이 참가해 당사연구 지도문건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교육생이 여전히 “제9차, 10차, 11차 당대회의 문건에 의거해 문화대혁명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제9차, 10차, 11차 당대회의 성격을 보면, 중공 제9차 당대회(1969.4.1-24)는 문화대혁명 시작 후 3년 차에 광란 분위기가 고조되던 상황 속에 개최되었고, 린바오와 장칭의 양 대 파벌이 중심이 되어, 극좌 구호와 분위기 속에 류샤오치, 덩샤오핑 등 당내 실용주의파를 비판, 숙청하는 결정과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회의 당시의 기록영화를 보면 흡사 종교집회의 광신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게 연출되었다. 또한, 제10차 당대회(1973.8.24-28)는 린바오파가 제거된 후에 개최되었고, 제11차 당대회(1977.8.12-18)는 마오쩌둥 사망 후 장칭 등 4인방을 제거한 후에 마오의 후계자인 화궈펑파, 즉 범시파(凡是派)가 주도했다. 따라서 이 세차례 당대회 문건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하게 문혁노선과 마오쩌둥의 유헌통치를 주장하는 범시파에 경도된 주장이었다. 아직까지도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당원과 정부 공

4) 赵海均(2008): 9-15의 내용을 정리, 재구성했음

무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증시한 우장이 이론연구실의 순장장(孙长江)에게 이를 비판하는 문장을 작성해 중앙당교가 발간하는 내부 간행물인 ‘이론동태(理论动态)’에 게재하게 했고, 순장장이 후야오방이 수차례 발언한 내용에 의거해,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제목은 당시 난징대학(南京大学) 철학과 강사 후푸밍(胡福明)이 1977년 9월에 광명일보에 보낸 문장 제목과 같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시 광명일보 편집총책 양시광(杨西光)이 순장장을 광명일보로 초청해, 후푸밍의 문장을 수정하면서, 두 사람의 문장을 결합해 한 문장으로 작성하게 했다. 이후 후푸밍과 순장장이 포함된 광명일보 내 5인 작업팀이 다시 수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서, 1978년 4월 27일에 최종 확정된 원고를 후야오방에게 보냈다. 광명일보에 후푸밍의 원고가 도착한 지 7개월이 지났고, 10차례의 수정을 거친 후였다.

다음 문제는 이렇게 작성한 문장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였다. 양시광은 광명일보에만 발표해서는 충분히 기후를 조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화사, 인민일보, 해방군보의 책임자들과 의논해, 광명일보가 발표한 후에, 신화사가 원고를 보내고, 그 다음 날 인민일보와 해방군보가 전제하도록 도모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의 선전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가 소위 범시파에 속하는 자였으므로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밟아서는 광명일보 게재 동의를 받기 어려웠고, 신화사가 원고를 보내서 인민일보에 전제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다. 따라서, 양시광은 우장과 의논한 후에 우선 ‘이론동태’ 지에 발표하고, 다음 날 특약평론원 명의로 광명일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당시 ‘이론동태’에 실리는 문장은 모두 후야오방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먼저 후야오방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광명일보 게재 시에 유관부문의 심사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후야오방에게 심사를 받는다는 형식을 취할 수 있었다. 실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5월 10일, 중공 중앙당교 내부 간행물인 ‘이론동태’가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제목의 문장을 게재하고, “광명일보사 원고 제공”이라고 표기했다. 당시 중공중앙 주석 화궈펑은 북한 방문 중이었다.
- 5월 11일, 광명일보 제1면에 광명일보 특약평론원 명의로 이 문장을 발표하고, 당일 밤에 신화사가 전국 주요 지방신문사에 발송했다.
- 5월 12일: 인민일보, 해방군보, 그리고 6개 지방신문이 이 문장을 전제했다.
- 5월 13일: 15개 지방신문이 이 문장을 전제했다.
- 5월 말까지 중국 전국 33개 지방신문 중 30개 신문이 이 문장을 전제했다.

이 같이 “진리표준” 문장이 주요 중앙지와 지방지를 통해 발표되고 나서, 당시 중공 중앙위원회 부주석 왕동싱(汪东兴)을 비롯한 범시파(凡是派)의 저항 시도가 있었으나, 덩샤오핑이 “진리표준”에 대한 지지 발언을 계속하면서 지지여론을 확대시켰다. 즉, 5월 19일과 5월 30일, 덩샤오핑이 문화부 핵심간부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문장 내용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부합한다고 밝



<사진 3> 광명일보에 게재된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 제목의 문장

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천파(实践派)들은 탁월한 전략가인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이론투쟁을 추진해 나갔다.

“진리표준” 문장 발표 후 22일이 지난 6월 2일, 덩샤오핑은 전군정치공작회의(全军政治工作会议)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우리들중에도 일부 동지들은 날마다 마오쩌둥 사상에 대해 말한다. 그런데 마오쩌둥 사상의 핵심이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근본 관점이기도 한 실사구시(實事求是)와 모든 걸 실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즉 이론과 실천을 상호 결합해야 한다는 근본원칙을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실제에서 출발해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천하 대죄를 짓는 것이라고 매도하기도 한다. 그들의 실제 관점은 그저 맹목적으로 모방하고 바꾸고 옮기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사상을 위반하는 것이고, 당중앙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어서, 7월 21일에, 덩샤오핑은 중앙선전부 책임자에게 이제 막 시작한 활발한 정치국면을 후퇴 시킬 수 있으니, 다시는 금지령이나 토론상의 금지구역 설정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그후 8월 19일에는 문화부 책임자와 이론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이론문제를 “4개 현대화”의 관점에서 논하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진리표준” 문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9월에는 쓰촨(四川), 광둥을 순시하고, 조선(朝鮮)을 방문하고 오는 길에 동북3성 성회 도시들을, 그리고 이어서 허베이 탕산(唐山), 텐진(天津) 등지를 순시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전파하고 다녔다. 1978년 8월에 중공 헤이룽장성(黑龙江省)위원회 제1서기인 양이천(楊易辰)이 지방 지도자중에서는 처음으로 “진리표준”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고, 그후 이 논쟁을 둘러싼 범시파와 실천파간의 판세도 급속하게 역전되었다. 화궈펑을 중심으로 하는 범시파가 주장하는 “마오주석이 결정하고 지도한 모든 것을 계속 옹호하고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들이 대표적 공적(功績)으로 내세우는 4인방 제압은 논리적으로 내재적 모순과 자가당착을 포함한 것이었다. 마오가 중시한

히고, “현재, 실천이 진리를 검증하는 기준이라는 마르크스 철학의 기본개념조차 문제가 되니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 당시의 중공 내부 분위기는 그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마오쩌둥에 의한 장기간의 1인 독재체제는 “두개의 범시” 같은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세력을 유지하는 범시파(凡是派)를 만들어 냈고, 이들이 당과 정부의 주요 요직

문화대혁명을 실제로 주도해 온 세력이 4인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시파는 덩샤오핑과 후야오방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파가 주장하는 “진리표준” 논쟁 공세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진리표준” 토론은 3개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첫단계는 1978년 5월부터 시작해, 12월 중공 11기3중전회에서 이 토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때 까지이고, 둘째 단계는 1979년 1월18일부터 4월 초까지 약 3개월간 이론공작 실무회의를 개최해, 베이징과 각 성(省), 직할시 이론업무 담당자와 선전부 직원 약 500여명이 이 문제를 토론했다. 셋째 단계는 1979년 7월부터 진리표준 토론의 보충학습을 실시했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범시파의 주요 인물들이 당정 주요 보직에서 물러나고, 실천파들로 교체되었다. 먼저 산시성(山西省) 따자이(大寨)의 농촌 지도자 출신으로 마오쩌둥에 의해 발탁되어 중앙정치국 위원과 국무원 부총리 직무를 담당하던 천용구이(陈永贵)⁵⁾가 사퇴서를 제출하고 물러났고, 2월에는 1978년에 이미 중공 중앙판공청 주임 직위에서 사퇴한 왕동싱(汪东兴)이 중공중앙 부주석 직위에서도 물러났다. 이어서 4월에는 1978년 베이징시 제1서기 직을 사퇴한 우더(吴德)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고, 국무원 부총리 지딩웨이(纪登奎)도 물러났다. 화궈펑(华国锋)은 1981년 6월 중공 11기 6중전회에서 중공중앙 주석과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무에서 사퇴했고, 이를 물려 받아서, 후야오방이 중공 중앙 주석에, 덩샤오핑이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취임했다. 이어서 9월에는 화궈펑이 국무원 총리직에서도 사퇴했고 이를 자오즈양(赵紫阳)이 계승했다.⁶⁾

박스 해설

천용구이(陈永贵: 1914.2 ~ 1986.3)

중국공산당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빈농이나 노동자 집안 출신이고, 이를 혁명이나 장정(长征) 참여 경력과 함께 자랑스럽게 내세운다. 천용구이(陈永贵)는 전형적인 빈농의 아들이지만 그밖에는 혁명 경력도 내세울 만한 정도가 안되고, 장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아버지 천즈루(陈志如)가 천용구이가 6세이던 1920년에 가난 때문에 (천용구이의 어머니인) 처와 딸과 어린 아이를 팔고, 장남인 천용구이만 남기고 죽은 후에, 천용구이는 7세때부터 마을 과부집에서 기식하며 지주를 위해 소를 방목하며 돌보는 일을 했다. 산시성(山西省) 시양현(昔阳县) 따자이향(大寨乡)에서 빈농으로 살던 천용구이는 1948년에 34세의 나이로 중국공산당에 가입했고,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모범노동자, 촌지부 서기, 농업합작사 사장 등의 직무를 맡아 일하면서, 중국공산당이 추진하던 고급합작사, 인민공사 등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걸출한 지도력과 업적을 인정 받고, 중공 산시

5) 천용구이의 약력과 일화는 박스해설 참고

6) 彭森, 陈立等 (2008): 69



<사진 4> 천용구이(1914.2~1986.3)

성 위원회와 마오쩌둥의 신임을 얻어서, 1960년 2월 중공 산시성 위원회가 ‘모범당지부 서기 천용구이를 배우자’¹⁾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이후 천용구이(陈永贵)라는 이름이 중국내 모든 신문에 자주 실리면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1964년 12월에는 마오쩌둥이 ‘농업은 따자이에서 배우자(农业学大寨)’라는 구호를 발표하고 천용구이를 일거에 중앙지도자로 발탁해, 중공 중앙 정치국 위원과 국무원 부총리 직위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죽고, 4인방이 제압, 분쇄된 후에, 화궈펑을 중심으로 하는 범시파가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파와의 권력투쟁에서 패하면서, 천용구이도 1980년에 국무원 부총리에서 물러났고, 베이징에서 살다가, 1986년 3월, 71세에 폐암으로 베이징의 병원에서 생을 마쳤다.

[장면1] 1977. 7. 14: 중공 중앙 10기3중 전회 회의장

덩샤오핑의 원래의 직무를 회복하는 결정을 한 중공 중앙 10기3중 전회 회의장에서 천용구이가 오랜만에 덩샤오핑을 만나서 악수하며 말했다. “샤오핑 동지, 우리가 다시 같이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샤오핑 동지, 이번에 얻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착오를 범할수도 있습니다. 동지는 이미 나이가 적지 않은데, 다시 또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마오주석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덩샤오핑이 천용구이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음색을 드러내지 않은 체로 말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용구이 동지”

천용구이가 말했다. “오직 모든 걸 마오 주석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 어떠한 곤란도 모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오주석이 우리를 떠났지만, 아직도 그의 찬란한 저작들과 그의 계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덩샤오핑이 그를 데리고 휴게실로 가서, 느긋하게 함께 같은 소파에 앉은 후, 중화 담배 한 개비를 건네 주고 말을 시작했다. “용구이 동지, 마오주석의 저작 공부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은 당신만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마오 주석이 창도한 공작방침중 가장 근본적인 것 두 개를 든다면 그게 뭔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1) ‘向模范党支部书记陈永贵学习’

천용구이는 수차례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으나, 마땅히 어떻게 대답해야 할 지 알수 없었다.

덩샤오핑이 말했다. “내가 이해하기에는, 마오주석이 창도한 업무방침의 기본은, 군중노선(群众路线)과 실사구시(实事求是)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천용구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나도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덩샤오핑이 이어서 말했다. “그런데, 우리들중 일부 동지는 마오쩌둥 사상에 정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인방(四人帮)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떠들어 대서 린바오(林彪)조차도 회의중에 그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정말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장악했다고 생각합니까? 단지 어록 한두 구절 외우고, 마오주석의 말 몇 마디 모아서 연설이나 하는 건, 마오주석의 말을 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용구이가 한참 후 한마디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덩샤오핑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 지 알수가 없었다.

[장면 2] 1980년 1월 1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무원이 개최한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당시 부총리 천용구이가 미리 회의실을 나와서, 휴게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잠시 후 회의가 끝나고, 덩샤오핑이 미소를 지으며 나올 때에, 천용구이가 앞에서 그를 부르고 몇가지 물어볼 게 있다며 휴게실로 가자고 했다. 잠깐 머뭇거리던 덩샤오핑이 고개를 끄덕이고 천용구이와 휴게실로 들어갔다.

천용구이가 덩샤오핑이 담뱃불을 붙이는 걸 보면서, 더 지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샤오핑 동지, 요 며칠간 당신은 날마다 회의를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요점들을 제출하는 데, 나는 정말 받아 들이기 힘듭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건, 당신은 도데체 마오 주석의 혁명노선을 집행할 것인가 아닌가? 또 마오쩌둥 사상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 아닌가? 마오주석의 “무산계급 독재하 계속혁명이론”을 아직도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덩샤오핑이 듣고 나서 담배를 한 모금 피고, 천용구이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후에 천용구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덩의 그날 미소가 그를 매우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고 했다.) 덩샤오핑이 반 정도 피운 담배를 재떨이 안에서 비벼 끄고 나서,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4인방이 무대에 있는 시절이라고 착각하고 있나? 제기하는 문제가 유치하기가 마치 세살 먹은 아이 같다. 중국공산당 역사상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즉, 무엇이 마오쩌둥 사상인가에 대한 발언권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책임자라고 생

각한다. 용구이 동지, 공산당에 가입한 지 얼마나 되었나? 나는 당신이 한사람의 공산당원의 기준에 의해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천용구이가 불복하는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복권될 때의 신세를 잊어서는 안된다. 당 중앙에 두가지 파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자신이 현재 도대체 어떤 노선을 집행하려고 하는가 라는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덩샤오핑은 천용구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류가방을 들고 돌아서 나갔다.

[장면 3] 1981년 6월 26일, 중공 중앙 정치국

중공 11기6중전회²⁾ 개최 전날인 1981년 6월 26일 저녁, 중공 중앙정치국 위원들이 산서(山西)성에서 천용구이 반대파들이 보낸 그의 비행에 대한 비리 등을 폭로하는 편지와 자료를 보고 있었다. 그중에는 항일전쟁 시기 따자이현이 일본군 통치 하에 있던 시절에 천용구이가 일본군 앞잡이 노릇을 했었다는 과거 경력과, 1973년 당시 따자이 생산대 지부 서기였던 천용구이가 그해 개최된 중공 제10기1중전회에서 정치국위원으로 당선되던 해에 따자이현이 속한 시양(昔阳)현이 양식 생산량을 부풀려서 허위보고 했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자료를 본 몇몇 정치국 위원들이 덩샤오핑에게 천용구이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조사하자고 건의했다. 덩샤오핑이 동의하면서 한탄조로 말했다. “그는 본래 탁월한 농촌 기층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를 중앙으로 불러와서 국무원 부총리 자리에 앉혀 놓았으니, 이것은 그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닌가?”

천용구이가 비서에게 대필해서 국무원 부총리 사직보고를 쓴 후에, 덩샤오핑이 그를 불러서 말했다. “당신도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관점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필히 당의 기율에 복종해야 한다. 바로 우리들이 당의 기율에 복종했던 당시와 같다. 만일 조직의 뒤에서 음모를 꾸미면, 그것은 공산당원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일체의 문제를 국법과 당기율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4인방’에 대한 처리는 당내 모순 처리방식이 아니고 형법에 의한 처리이다.”

덩샤오핑의 말에 천용구이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고, 한참 만에 이렇게 말했다. “중앙에 의견을 제출하겠다. 단, 당의 기율과 규정에 복종하겠다.”

덩샤오핑이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말했다. “공산당원은 올라가

2) 1981년 6월 27일-29일 기간중에 개최된 중공11기6중전회(中共十一届六中全会)에서는,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关于建国以来党的若干历史问题的决议)’가 통과되었다. 이는 건국 이전인 1945년에 개최된 중공 6기7중전회에서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 이후, 중요한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로 평가된다. 1981년 ‘결의’에서는 중국의 사회주의가 초급단계에 처해 있고, 생산력 발전과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구체적인 제도들을 개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궈펑이 당 중앙위원회 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위에서 물러나고, 후야오방과 덩샤오핑이 당 중앙위 주석과 군사위 주석이 되었고, 자오쯔양이 당 중앙위 부주석이 되었다. 이로써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파’가 ‘범시파’와의 권력 게임에서 승리하고 완전히 권력을 장악했다: 彭森、陈立等 (2008): 101-102.

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나의 경우에도, 건국 이후 두번 타도되었었고 두번 중앙 영도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나는 결코 어떠한 비조직적 활동도 하지 않았고, 엄격하게 자기 검열을 했다. 나는 당신에게 꼭 나처럼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다. 단, 나는 당신이 당원의 기준과 기율에 따라 처신하기를 바란다. 당신은 4인방 패가 아니고, 중앙은 당신이 과거에 많은 일을 한 것을 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조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 대화 후에, 천용구이는 화궈펑(华国锋)을 찾아가 사표를 제출했다. 화궈펑은 천용구의 사표를 처리할 수 밖에 없었고, 자신도 중공 중앙위원회 주석직에서 사퇴했다.

.....

1980년대말, 폐암 투병 끝에 임종을 앞두고 있던 천용구이가 그를 문명하러 간 사람들에게 말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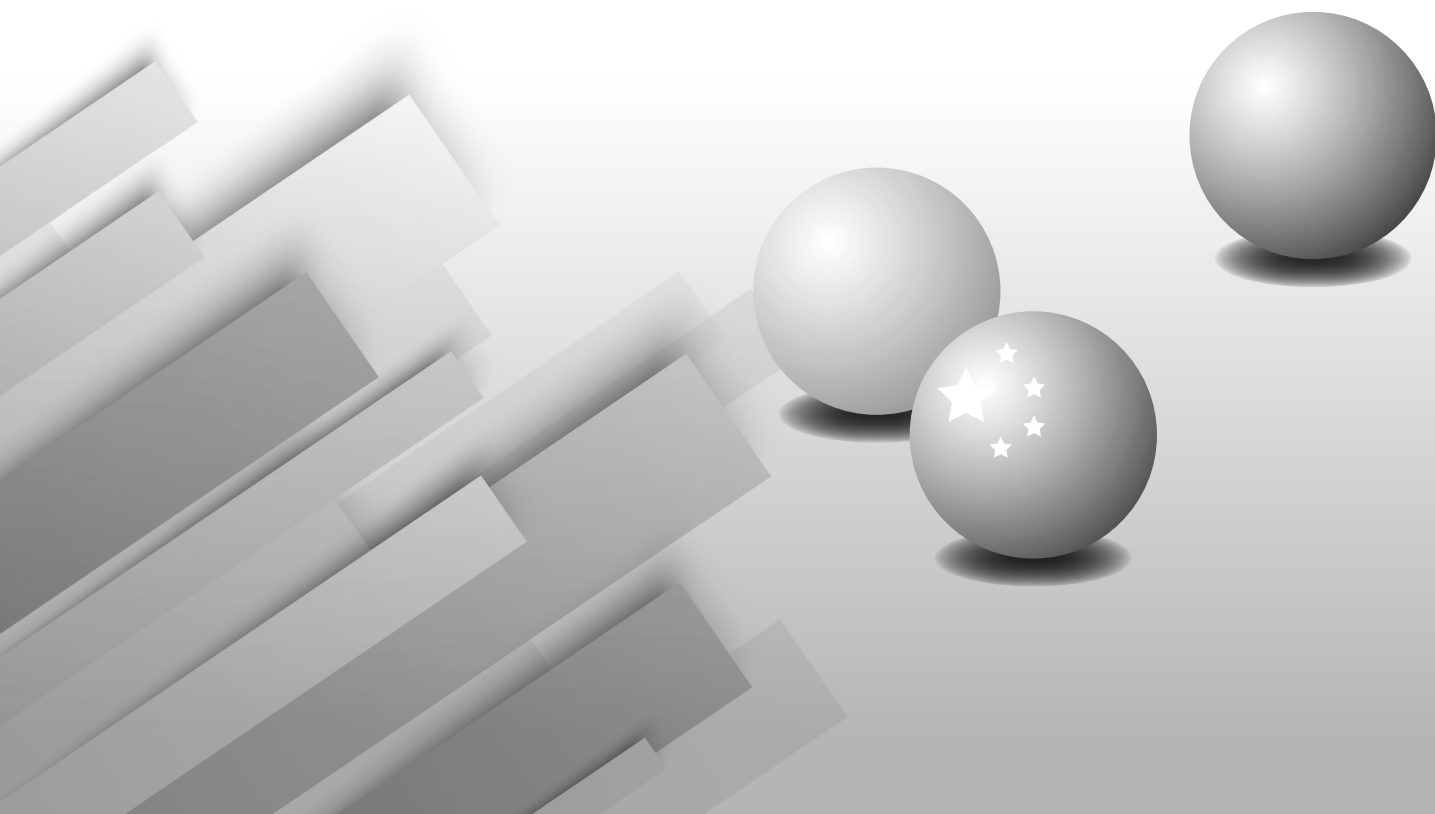
- 알렉산더 V.판초프외. 유희복옮김(2018), 『설계자 덩샤오핑』, 알마출판사
에즈라보걸. 심규호, 유소영옮김(2014), 『덩샤오핑 평전』, 민음사
안치영(2013), 『덩샤오핑 시대의 탄생』, 창비
왕단 . 송인재역(2013), 『왕단의 중국현대사』, 동아아시아
謝春濤, 이정림역(2012),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한얼미디어
박인성(2009),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 한울아카데미
마리-클레르 베르제르 . 박상수 옮김(2009), 『중국현대사』, 심산
모리스 마이스너. 김수영옮김(2004),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2』, 이산
童林青编著 (2008), 『回首1978——历史在这里转折』, 人民出版社
林蕴晖 (2008), 『国史礼记-事件篇』, 东方出版中心
罗平汉 (2006), 『当代历史问题礼记二集』, 世界知识出版社
张涛之 (1998), 『中华人民共和国演义(上、中、下卷)』, 作家出版社
罗平汉 (2006), 『当代历史问题礼记二集』, 世界知识出版社
毛毛 (1997), 『我的父亲邓小平』, 中央文献出版社
薄一波 (1993), 『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上下卷』, 中共中央党校出版社.



8. 백제시대 사신교류와 교역의 관문, 서산 지곡면 닻개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산 지곡면, 안건의 출생지이자 최치원 선생의 위패 봉안지

닷개포가 위치한 지곡면은 서산시내와 대산을 사이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대호지면, 남쪽으로는 성연면과 팔봉면, 북쪽으로는 대산읍과 인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천혜의 해안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로림만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지곡면이 백제시대 사신교류와 교역의 관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곡면은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접하여 치리국국이었고, 백제시대에는 지육현, 신라시대에는 부성군에 예속된 지육현으로, 진성여왕 갑인 7년(894)에는 고운 최치원이 부성태수가 되어 다스린 곳이다. 1284년 고려 충렬왕 10년 부성군을 서산군으로 개칭 지군사로 승격시켰으나 1914년 대한제국 시대에 지곡면으로 격하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곡면은 몽유도원도로 유명한 안견 선생의 출생지로 그의 예술혼을 후세에 기리기 위한 《안견기념관》과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위패가 봉안된 부성사, 충무공 정충신 장군의 영정과 위패가 봉안된 진충사가 있는 유서가 깊은 고장이다.¹⁾



<그림 1> 서산시 지곡면 위치도

자료: 네이버 지도

백제왕이 중국 양나라로 보내는 사신을 환송했던 장소, 닻개포(죽포)

백제의 해상교류의 관문으로 일컫는 닻개포(구)는 오늘날 충남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를 말한다. 이곳은 백제의 왕이 중국 양나라로 보내는 사신들을 환송하던 장소였다. 이 일대가 닻개포로 고증된 데에는 서산의 향토사학자이신 이은우 선생의 노력 덕분이다. 그는 서산지역 곳곳을

1) 위키백과_「지곡면」 참조.

직접 발포 뛰며 ‘서산의 지명사’를 만들었다. 오랜 세월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닻개문화를 세상에 끄집어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 살고 있는 곳의 문화와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닻개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당부했다.²⁾

지곡면 닻개포는 약 1500년 전 백제와 중국(남북조시기 양 나라 등) 간 사신 교류와 교역의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1500년 닻개백제사신행렬 복원을 위한 제4회 닻개백제사신행렬 고증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 토론회에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박재용 연구실장은 “서산에는 서해안과 내륙의 교두보에 접한 곳을 중심으로 백제 고분군이 다수 분포해 있고, 중국교류의 출발점이자 지육현(地六縣) 치소 가능성이 높은 부성산성과 닻개가 위치해 있다”며 백제의 중요 행정구역 및 교통의 중심지에 산성(치소 추정)이 다수 분포해 있고, 서산이 중국교섭 및 불교 유입처라는 위치를 확인해 주는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이 있는 곳으로 볼 때 부성산성이 있는 서산 지곡면 닻개포구에서 대중국 교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³⁾



<그림 2> 부성산성 내의 오향각



<그림 3> 흔적으로 남은 부소산성

자료: <https://blog.naver.com/ohcw2002dyd/221335182769>

그는 또 “서산 지곡면 무장3리에서 ‘분청사기요지’가 출토되었고, ‘개원통보’와 ‘원풍통보’ 등이 나왔으므로 이 지역이 중국 문물의 유입지였음이 확인되었다”며 “지곡면 산성리에 위치한 부성산성에는 우물터와 건물지 등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군사목적보다 중국과의 물류 필요성에 의해 산성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부성산성을 발굴하게 되면 산성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닻개와 부성산성이 있는 지곡면이 대중국 교류 거점이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부성산성을 적극 발굴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줄 확실한 증거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토론회에서 류충식 지곡문화회장은 “지곡면 닻개는 평평한 지형으로 배가 정박하기 좋

2) 충청뉴스라인(2015.01.01.): 해상왕국 관문 ‘닻개’ 지키는 삼총사

(<http://www.ccnewsla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0>)

3) 오마이뉴스(2018.07.17.). “서산 지곡면 닻개포구, “대중국 교역 이뤄졌을 가능성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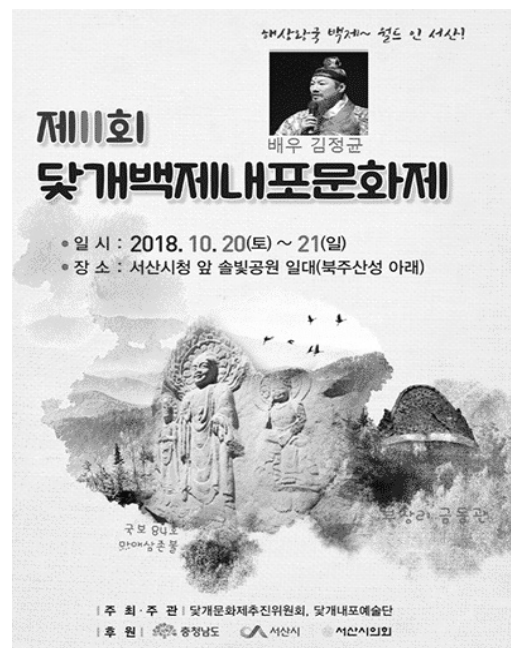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4903)

은 지형이며, 어릴 적에 어르신들로부터 여기에서 중국과 문물교류를 많이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속히 부성산성을 발굴해 닻개포구의 대중국 교역의 역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 부성산성에서의 발굴과 이 지역에서는 역사 자원 복원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가능할 것이다.

닻개문화제를 통한 서산의 해상교류 역사 복원

1500년의 닻개포구의 역사, 그리고 1800년의 내포문화를 부활시키고자 서산시에서는 닻개백제내포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닻개백제내포문화제는 약 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즉위식과 백제 사신 행렬을 테마로 하여 기획된 종합 문화예술 축제이다. 이 문화제는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약 1500년 전 백제와 중국의 문화 예술적, 상업적, 외교적 교류를 부활시켜 지역의 백제 문화를 무형문화재로 육성하고 충청남도의 백제 문화적 소재를 예술적으로 접목시켜 문화예술인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림의 마당을 마련하고자 2010년 11월 19일에 처음 개최되었다. 문화제에서는 서산의 닻개포구에서 시작하여 음암~운산~면천~삽교~예산~유구를 거쳐서 공주의 웅진성으로 이어지던 백제시대의 사신 행렬을 상징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충청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축제를 지향하며, 백제 사신의 발자취를 찾아 내포 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⁵⁾

지난 2018년 10월 20~21일 서산시청 앞 솔빛공원 일대(북주산성 아래)에서 열린 제11회 닻개백제내포문화제에서는 닻개백제사신행렬⁶⁾, 닻개 우리소리 전국국악 경연, 닻개 칠지도 만들기 대회, 닻개 백제기악탈 만들기 대회, 닻개 세계사신행렬 함께 걷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그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닻개백제내포문화제 홍보 포스터

4) 상동

5) 네이버지식백과 「백제닻개내포문화제」 참고.

6) 닻개백제사신행렬은 1992년부터 지역 향토사학의 대가 탄곡 이은우 선생과 공주대학교 박물관장인 이남석 선생 그리고 (사)서산향토문화연구회 분들에 의해 고증, 연구된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콘텐츠이다. 이 프로그램은 닻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를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 2009년부터 아심차게 기획, 추진하고 있는 '월드 인 닻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닻개문화뉴스 블로그)

■ 제11회 닻개백제사신행렬 재연

- 주최/주관 : 닻개내포예술단
- 장소 : 서산시청 앞 솔빛공원 일대~변화 1로
- 내용 : 공주의 웅진성에서 출발하여 예산, 당진을 거쳐 서산의 닻개포구를 통해 세계로 나가는 백제사신행렬 재연

■ 제7회 닻개 우리소리 전국국악 경연

- 주최: 닻개문화제추진위원회, 닻개내포예술단
- 주관: 무궁화예술단
- 장소: 서산시동부전통시장 짬지 공원 야외무대
- 내용: 내포문화의 중심 서산에서 개최되는 전국 민요경창대회~!

■ 제7회 닻개 칠지도 만들기 대회

■ 제3회 닻개 백제기악탈 만들기 대회

■ 닻개 세계사신행렬 함께 걷기 체험



백제사신 행렬 퍼포먼스



칠지도만들기, 백제기악 탈 만들기 체험



‘칠지도의 비밀’ 공연



폐막공연

<그림 5> 제11회 닻개백제내포문화제 행사 장면

자료: 신아일보(2018.10.22.)

미래로 향하는 닻개문화제

닻개백제내포문화제는 지난해까지 11번의 행사가 개최되었지만 사실 전국은 차치하고서라도 충청도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축제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문화제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고 애정도 많다.

2018년 7월 17일에 열린 제4회 닻개백제사신행렬 고증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 토론회에서 닻개문화제추진위원회 백승일 위원장은 닻개문화제의 미래상으로 “1500년 전 닻개백제사신행렬을 복원해 이를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세계사신행렬 창 의 퍼포먼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대산국제여객항과 고대 뱃길을 이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대중국 백제교역지와 문화예술교류, 닻개 백제포구마을 조성하고, 세계 내포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세계 바다불꽃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⁷⁾

정기범 기호문화유산 소장은 "서산뿐만 아니라 태안, 예산, 홍성 등 각 지방의 협력이 있어야 닻개문화제가 충남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 가능하다"며 "세계사신행렬퍼레이드는 천안의 흥타령축제처럼 지역콘텐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문화제의 역사와 규모는 크지 않지만 향후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지역발전 차원에서 보자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산시가 대산항과 중국 산둥성 룡옌안 간 여객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대외교류, 지역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 닻개포의 역사는 향후 의미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지고 보면, 백제와 중국 간 사신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복원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상상력을 통한 서산 닻개포의 역사 복원이 지역문화와 지역발전에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참고자료

네이버지식백과 「백제닻개내포문화제」 참고.

닻개문화뉴스: 닻개백제사신행렬

백제뉴스(2018.10.17.): 서산 백제내포문화부활 '11회 닻개백제내포문화제' 20일 개최_ <https://blog.naver.com/baekjenews/221379335159>

위키백과 「지곡면」

오마이뉴스(2018.07.17.). 서산 지곡면 닻개포구, “대중국 교역 이뤄졌을 가능성 높다”

충청뉴스라인(2015.01.01.): 해상왕국 관문 ‘닻개’ 지키는 삼총사

7) 상동

「충청중국포럼 소식」

제39회 충청중국포럼

제39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민간주도 한·중 지방문화교류 사례 및 시사점’

- 제39회 충청중국포럼이 지난 4월 24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남 고성 소재 ‘한국디카시연구소’의 이상옥 대표가 『민간주도 한·중 지방문화교류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도 및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그림1> 제39회 충청중국포럼 사진

- 이상옥 대표는 ‘디카시’의 의미와 유래, 경남 고성과 디카시의 연계성, 문예운동으로서 지역발전에 가져다주는 의미 등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와 ‘詩’의 줄임말이며,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이고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예술이라고 하였다.
 - 그리고 ‘디카시’라는 용어는 2004년 4월 2일 처음으로 인터넷 한국문학도서관 ‘이상옥의 개인서재’ 연재코너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고성가도’라는 디카시 시집을 출간한 것이 고성을 디카시의 발원지로 만든데 가장 큰 공헌을 했으며 또 고성은 이상옥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 ‘디카시’를 통한 국제문화교류는 2016년이 원년인 셈인데, 그 이유는 2008년부터 개최해 오던 ‘경남고성디카시페스티벌’이 2016년부터 국제디카시페스티벌로 개최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작년에는 중국 정저우 현지에서 ‘제1회 중국대학생디카시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칭다오조선족작가협회와 MOU를 체결했는데 앞으로 한중 우호협력과

문학교류를 추진해나 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 ‘디카시’를 통한 문예운동은 고성뿐만 아니라 인근 부산, 김해, 하동 등 지역에서 매년 활발히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단순 문예운동에서 시작한 ‘디카시’가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 강의가 끝난 후 종합토론이 있었다.

-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현대인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데 이것을 문예운동으로 승화시킨 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디카시’의 등단제도와 번역된 중국 참가자의 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이상옥 대표는 등단제도는 아직 없지만 앞으로 ‘한국 디카시인협회(가칭)’ 등 단체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평가는 국내 전문 시인들이 하는데 번역이 거칠다 해도 영상이 있어 평가하기 수월하다고 하였다.
- 도와 시군 관계자들의 공모전이나 페스티벌 참여율에 대한 질문에 이상옥 대표는 SNS를 통한 홍보는 아주 효과적이라면서 최근에는 유튜브를 개설해 ‘디카시’활동을 전개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 마지막으로 이상옥 대표는 ‘디카시’가 국제교류에서 가지는 장점을 시조는 정형적이고 리듬이 중요한데 ‘디카시’는 언어의 번역이 거칠어도 영상이 있고 영상속에 숨은 의미를 들춰내는 재미가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디카시’를 통한 행사가 지역에 가져다주는 가장 큰 장점은 현지에 와야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지역 관광자원의 홍보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용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9.4)

호수	발간월	주 제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촉
제2호	2015년 7월	신상태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제3호	2015년 8·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제5호	2015년 11·12월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합본호)
제6호	2016년 1·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7호	2016년 3·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8호	2016년 5·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제9호	2016년 7·8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제10호	2016년 9·10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제11호	2016년 11·12월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제12호	2017년 3·4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현황과 과제
제13호	2017년 5·6월	중국 대기오염의 현황과 시사점
제14호	2017년 7·8월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동향과 시사점
제15호	2017년 9·10월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개발: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석
제16호	2017년 11·12월	중국 수산업의 최근 발전 동향
제17호	2018년 1·2월	중국 전기자동차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18호	2018년 3·4월	2018년 중국 양회(兩會)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제19호	2018년 5·6월	충남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1차 산업
제20호	2018년 7·8월	충남 시·군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1차 산업
제21호	2018년 9·10월	중국 지방정부의 온라인 정무서비스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제22호	2018년 11·12월	시도별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현황 분석
제23호	2019년 1·2월	중국 동북3성 경제·산업 현황분석 및 시사점
제24호	2018년 3·4월	중국 하북성 항일유적지 현황과 시사점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